ISSN 2287-7061

*Monthly Report*

# BRICs INSIDE

2014년 6월호

최근 인도 총선 결과 평가와 전망

인도 신정부의 모디노믹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도 회사법 해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여성임원 고용 의무화

인력관리에 속타는 주중 한국기업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Monthly Report*

# BRICs INSIDE

2014년 6월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Contents


1 인사이드 칼럼 **최근 인도 총선 결과 평가와 전망**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교수

8 **전문가 긴급좌담회 : 인도 신정부의 모디노믹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7 **인도 회사법 해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여성임원 고용 의무화**
사단법인 인도연구원

22 **인력관리에 속타는 주중 한국기업**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27 이달의 브릭스

28 **브라질** 1분기 경제성장률 1.9%로 소폭 둔화
3월 산업생산 전년동월 대비 0.9% 감소

39 **러시아** 4월 GDP 성장률 1.1% 증가
4월 수출 6.0% 증가하며 상승폭 확대

50 **인 도** 2013/14 회계연도 GDP 성장률 4.7% 기록
4월 도매물가상승률 5.2%, 소매물가상승률 8.59% 기록

60 **중 국** 4월 소매판매, 투자, 생산 등 실물지표 소폭 둔화
5월 수출은 7.0% 증가하며 상승폭 확대

70 BRICs 주요 경제 통계

74 무역협회 주요 추진 사업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조학희 실장 (☎02-6000-5260, hockey@kita.net)
송송이 연구위원 (☎02-6000-6585, songiee@kita.net)
이봉걸 연구위원 (☎02-6000-5262, fengjie@kita.net)
홍정화 수석연구원 (☎02-6000-5178, marina01@kita.net)
유승진 연구원 (☎02-6000-5455, esjay@kita.net)
최유리 연구조원 (☎02-6000-5499, yuri122@kita.net)
송유진 인턴 (☎02-6000-5186, yoojin1401@kita.net)

# 최근 인도 총선 결과 평가와 전망

이 광 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교수



## 모디가 이끄는 인도국민당, 선거 압승으로 정권교체

2014년 5월 16일. 제 16대 인도 총선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구자라트 주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이 전체 543석 가운데 282석을 휩쓸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인도는 가장 꾸준히 선거를 통한 권력의 평화적 교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나의 정당이 정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한 일본이나 한국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가 성숙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록 인도는 선거가 진행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금품 향응 제공 사건이 있었지만 총선을 큰 사고 없이 치름으로써 인도가 세계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 국가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제 16대 인도 총선 개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렌드라 모디 구자라트 주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이 전체 543석 가운데 282석을 휩쓸어 다른 정당들과 연립을 구성할 필요 없는 절대 다수당이 되었다. 모디는 2002년 구자라트(Gujarat) 학살에 대해 비록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책임자로 지목받아 온 일을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면을 받은 셈이다.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가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전 총리가 암살당한 후 바로 치러진 1984년의 제 8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이래로 최근 30년 동안 특정 정당의 이러한 압도적 승리는 처음 있는 일이다. 1984년 총선은 사실상 인디라 간디 전 총리의 죽음을 선거에 활용하고 그리하여 역대 최고의 몰표를 집권 여당에게 몰아 준 비정상적인 선거라고 본다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단독 다수당 정권을 세우게 한 사례는 그보다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니 금번 정권교체는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5월 26일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

## 집권여당의 역사적 참패와 제3정당의 좌절

둘째, 네루의 외증손자로 4대 세습의 당사자인 라훌 간디(Rahul Gandhi)가 이끄는 현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회의는 44석을 얻었다. 이 결과는 그 당이 세워진 1885년 이래로 최대 규모의 참패이자 집권 여당이 가장 큰 차이로 정권을 내준 첫 번째 사례다.

셋째, 반부패를 기치로 내걸면서 2013년 연방 수도 델리의 주정부를 차지한 제3 정당인 보통사람당(Aam Aadmi Party)이 4석에 머물러 몰락하였다. 당대표 께즈리왈(Arvind Kejriwal)은 선거에 뛰어든지 1년 만에 델리 주 정부를 구성하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부패 척결을 위한 옴부즈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49일 만에 델리 주총리직을 사임하고, 델리 대신 모디가 출마하는 바라나시에 출마해 낙선했다. 제3당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 보통사람당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상실했다. 인도 국민들의 반부패 민심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 모디가 이끄는 극우 보수 정당인 인도국민당에게 갔다. 몰락을 거둔 것은 인도공산당(CPI, Communism Party of India) 또한 마찬가지다. 의원내각제임에도 인도에서 제3의 정당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선거가 되었다.

## 인도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왜 이렇게 인도국민당이 역대 찾기 어려울 정도의 압승을 거두었을까?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 현재의 인도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즉 '먹고사니즘'이다. 그것이 환상이든 아니든 간에,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구자라트 주 경제 발전을 이룬 것

으로 평가받아 온 모디를 선택함으로써 인도 국민의 열망은 도덕이나 인권 혹은 '학살'의 책임 같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건설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인도는 최근 3년간 나쁜 경제정책의 결과 때문에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고용이 악화되고 제조업과 농업의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고, 국제수지가 악화되었다.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꿈이 투표로 반영된 것이다.

## 집권여당의 부패와 현실에 근거한 당의 전략 부재로 회의당과 보통사람당 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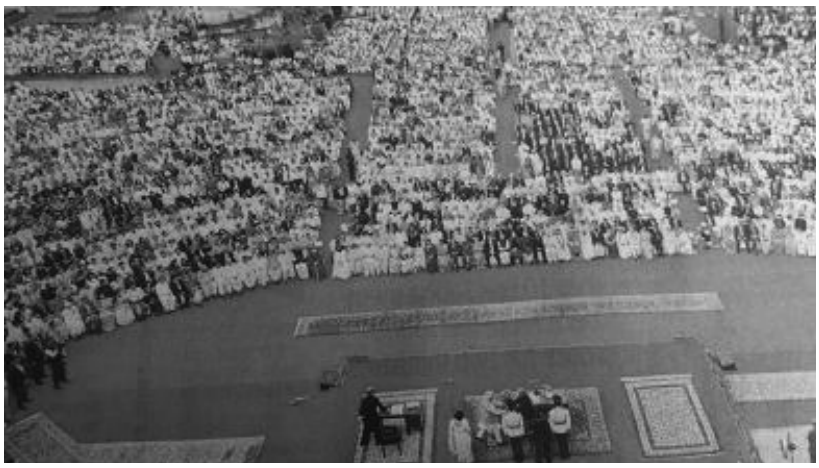
둘째, 과거의 영화에 기대어 온 인도국민회가 확실하게 몰락하였다. 1984년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총리가 암살당한 후 그의 아들인 라지브 간디(Rajiv Gandhi)가 총리직에 올라 3대 세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디라 간디의 '관 장사'를 통해 가능했으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가문과 혈통의 아우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인도국민회의 정부는 부패하였고, 정경유착으로 집권기간 내내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셋째, 부패 척결을 내세운 보통사람당은 과거 10여 년 전 인도공산당이 그러했듯, 제3당으로서의 위치에 확고하게 서는데 실패했다. 대통령 중심제든 의원내각제든 선거에서 바람으로 성과를 이루어내려는 것은 한 때의 스쳐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다.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당 지도부의 전략 착오가 몰락의 큰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과 모바일, SNS로 촌락까지 연결된 사회와 강한 민족주의

넷째, 글로벌 경제,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타고 촌락 수준에도 모든 정보가 크게 공개되고, 도시인의 부유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과거 지탱되어 온 촌락에서의 브로커 선거가 큰 힘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강한 인도, 국가주의, 민족주의, 애국심 등 인도인의 자존심이 맹위를 떨친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과의 적대적 갈등이나 인도 내에서의 종교공동체 갈등이 설사 불편하게 전개되더라도 더욱 강하고 부유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명제가 국민들 사이에서 지상 최대의 과제로 자리 잡은 것이다. 개표일 인도국민당 페이스북(facebook)에서는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전갈의 타이틀을 "India Has Won"이라고 달았다. 인도국민당이 아닌 국가가 이겼다는 것이다. 인도 국민은 인도국민당이 내세우는 더 강한 국력과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다.

[5월 26일 총리 취임식 광경]



## 신정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작은 정부' 지향할 전망

새 정부를 구성하는 인도국민당은 어떤 정책을 펼칠까? 큰 틀에서 볼 때, 인도국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기존의 인도국민회의 정부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 모디와 인도국민당은 부패 척결을 내세웠지만, 그들도 기본적으로 부패와 가까운 세력이고, 모디 정부가 정치인보다 관료를 정부 전면에 내세운다고 하였으나 정치인이든 관료든 부패는 이미 인도 국가의 문제이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다. 유통시장 개방과 같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대로 급속도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작은 정부'와 효율성을 내세운 민영화는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나 민영화 등을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폄으로써 거시적 경제지표는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주변부의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무슬림을 포용하는 상생의 정치로 파키스탄과의 관계도 회복될 전망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힌두 근본주의에 따른 주변국과의 마찰과 인도 내에서의 무슬림에 대한 탄압에 따른 갈등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힌두교 공동체주의에 의거하는 운동은 단지 선거 득표 전략일 뿐이다. 지금 그에게는 사회통합이 더 절실하다. 물론 선거 이후에도 집권 여당이 위기에 처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다시 그러한 종교 공동체에 의존하는 정치를 펼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정부 운용의 상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 1999년 집권 여당이었던 인도국민당의 바즈빠이(A.B.Vajpai) 총리가 파키스탄을 방문해 양국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사실도 있음을 보면 인도국민당 정부의 태도가 반무슬림-반파키스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모디

정부는 무슬림을 포용하는 상생의 정치를 외칠 것이고, 친 외국 자본의 분위기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6일 열린 총리 취임식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인도국민당 대변인은 모디 총리 취임식에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초청하였고, 이에 따라 샤리프 총리는 참석하였다. 취임식 첫 공식 일정도 마하뜨마 간디 추념비 참배였다. 모디가 선거 기간 동안 강한 인도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한 것이고 결국 모디와 그를 지지한 국민들은 국내 무슬림 및 파키스탄과의 평화 공존을 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모디 총리의 취임식에 참석한 파키스탄 총리]

인도의 모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우선 모디 총리가 첫 번째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경제 성장과 복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도입, 투자 이행 촉진, 재정 건전화 등을 이루어야 하고, 고용, 교육, 인프라 부문에서 더욱 실질적인 개혁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모디 정부는 적어도 초기에는 작고 강한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그가 정책의 효율성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작고 강한 정부가 수행해야 할 대표적인 국정 과제로는 각 부문 개혁, 투자 환경 조성, 경제 성장 진작, 그리고 더 나은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 등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 안보적으로는 국방을 더욱 강화하고 국경 문제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가면서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운영하는 보수 성향으로 갈 것이며 그 경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국들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가 구자라트 주 정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맞춰 주가 경제 성공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편이다.

모디 정부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제조업 육성이다. 90년대 이후 인도는 농

업과 IT산업 등 일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그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지만, 제조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모디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질의 생산 노동력을 보유하는 인도가 제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랫동안 쌓여 온 고물가, 고금리, 재정적자, 관료 부패 등의 문제가 정부가 바뀌었다 해서 쉽게 해결되고 그 기반 위에서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확실한 경기 회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제조업 육성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전망

모디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의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인도가 마찬가지의 환경에서 제조업 발전의 성공을 거둔 중국을 모델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 차원에서 예전에 비해 중국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좋은 예를 인도 제조업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암바서더(Ambassador) 자동차가 이제 관용차의 자리를 내주고 56년 만에 퇴출된다. 내수 위주의 제조업 플랜을 세운 네루 정부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퇴장 당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일은 이 오래된 자동차 공장을 중국이 인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제조업 육성에 사활을 거는 인도에 얼마나 열성을 다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이 인도에게 가까이 접근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초조해졌다. 세계 인권의 보루로 자처하는 미국 정부는 모디가 주총리로 있던 구자라트 주에서 2002년 무슬림 '학살' 폭동이 발생하면서 그가 사태를 방관 내지 조장했다는 이유를 들어 2005년에 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16대 총선에서 모디가 승리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하였다.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강한 인도'를 내건 정치 대국 인도의 모디 정부에 대한 유화책으로 보인다.

일본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극우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아베 총리가 모디 총리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대외 팽창 움직임을 견제하려 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인도에 대한 투자 확대를 대폭 늘려 이미 여러 지표에서 한국을 추월한 바 있다.

## 모디 정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접근해야

한국은 어떠한가? 모디는 2007년 당시 구자라트 주총리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최근 한국을 인도의 경제발전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교적 수사에 가까운 발언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의 경쟁에서 그들을 앞서서 모디 정부와 밀

접한 관계를 세울 만큼 실력을 쌓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은 우선 모디 정부의 인력 풀(pool)을 파악하여 새 정부와 밀착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인도는 정부가 바뀐다 해서 정부정책이 급속도로 바뀌는 일이 그리 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새로운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주요 극우 보수적 인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도국민당이나 그 배후 조직인 민족의용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이나 의용단일가(Sangh Parivar)와 같은 극우 단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인도국민당과 그 배후 조직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파악이 시급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크게 유효하지 않다.

새 총리 모디는 인도에서는 일벌레, 경제성장의 전도사, 강력한 국가주의자 등의 이미지로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인도 사회를 바라볼 때 여전히 카스트 체계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서구와 그를 대부분 따라가는데 급급한 한국의 언론은 그를 인도국민회의의 라훌 간디에 빗대어 '거지', '하층민 출신의 자수성가한 사업가'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직도 낭만적인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에 젖어 있는 시각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들어와 한국인들의 시각을 고착시키는 사례다.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미 세계의 대국 반열에 오른 인도를 지나치고 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내의 모든 인도 관계 전문가를 총동원하여 모디가 구성하는 새 정부의 성격, 특히 인적 구조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전문가 긴급좌담회 : 인도 신정부의 모디노믹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인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인도 경제정책 향방과 기업 환경의 변화"

지난 5월 16일 오후, 선거결과 개표가 시작된 후부터 무역협회는 인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인도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열어 전문가들이 말하는 인도 신정부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1. 일　시 :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6시, 트레이드센터
2. 참석자 : 조학희 무역협회 전략연구실장(사회), 김응기 (주)비티엔 대표, 인도연구원 상근이사, 조충제 KIEP 인도/남아시아 팀장, 이대우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순철 부산외대 러시아-인도통상학부 교수, 송송이 무역협회 차장(기록)

**조학희** 무역협회 전략연구실장

**김응기** (주)비티엔 대표, 인도연구원 상근이사

**조충제** KIEP 인도/남아시아 팀장

**이대우**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순철** 부산외대 러시아-인도통상학부 교수

## 16대 총선, 종교와 지역과 카스트보다도 경제에 관심 쏠려

**조학희 실장**: 앞으로 인도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달라지는 인도의 경제정책과 기업환경에 관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충제 팀장**: 선거를 하면 보통 정당, 인물, 정책 등에 관심이 많고 정당보다는 인물과 정책을 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세 가지뿐 아니라 종교, 지역, 카스트 등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이슈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한 연구기관에서 선거 전에 한 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 경제성장, 인플레 등 경제이슈에 따라 선거에 임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이 57%를 차

지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는 모디가 이끄는 인도국민당 쪽이 유리해지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총선 유권자는 8억 1,450만 명이었는데, 그중 29세 이하 유권자가 25% 가량 되며 1억 명 이상은 신규 유권자였습니다. 그들은 1991년 이후 개혁개방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최근 인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고유한 특질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김응기 대표**: 농촌인구가 70%가량 되는 인도에서는 전통적인 이슈에 더 치중해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SNS 등으로의 파급으로 인해 확실히 투표참여율도 높아져 66.38%에 달한다고 합니다. 뉴미디어에서 영향력을 떨치는 것이 실제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인도에서는 뉴미디어가 실제 생활로도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상이 된 듯합니다.

## 집권여당의 부패에 회의를 느낀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정권 교체

**이순철 교수**: 경제호황기를 누리다가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석탄게이트 등 부패스캔들이 불거지고 현 정권에 회의를 느낀 유권자들이 새로운 정권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기입니다. 석탄게이트가 일어나면서 석탄 채굴을 금지하고, 석탄이 없으니 화력발전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타밀나두 주는 석탄 부족으로 하루 2~10번 정도, 심할 때에는 20번까지 정전이 일어납니다. 부패로 인해 유권자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며 실생활로 정치가 연결되어 이번 총선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우 수석연구위원**: 정권교체 배경의 큰 사건 중 하나는 2010년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전날 육교가 무너지고, 행사를 위해 돈은 엄청나게 썼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이 매우 컸죠. 나렌드라 모디에겐 실행력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충제 팀장**: 이번 선거에서 특이했던 점은 인도국민당에서 이미 작년 9월에 모디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국민회의당에서도 라훌 간디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총리 후보로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회의당이 너무 무능하고 부패하고 성장률도 떨어져서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먼저 내세운 듯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행력 있는 모디, 구자라트의 발전 모델이 인도 전역으로 확산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학희 실장**: 주 총리를 잘 했다고 대통령까지 잘 하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이대우 수석연구위원**: 구자라트 주 총리 시절 모디가 이룩한 성과를 네 가지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 모든 곳에 도로, 전기, 수도를 공급하여 낙후한 농업을 성장시켰습니다. 둘째, 농업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생긴 유휴인력을 산업부문에 재배치했습니다. 구자라트 농민수가 지난 10년간 35만 5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근로자수는 22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셋째,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해 근로자를 흡수했습니다. 넷째, 전자정부를 도입해 부동산 등기를 DB화하면서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인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할 때에, 민간부지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등기는 3년간 전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주인은 계속 바뀝니다. 델리에 가면 건설하다 만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주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DB화는 소셜 인프라 구축의 근간입니다. 물론 모디가 구자라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집중해서 한다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충제 팀장**: 그런데 우리는 구자라트 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자라트 주는 서부의 발전되지 않은 주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서부의 라자스탄 주는 황무지가 많고, 구자라트 주는 늪지와 갯벌이 많아서 한계가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감한 토지가 적고, 저개발 상태여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29개 주에서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웨스트뱅갈 주는 너무 비옥한 땅이라서 타타자동차 부지로 내놓을 수 없다고 했었고, 구자라트 주에서는 황무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타타자동차가 구자라트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자라트 주에서 했던 것과 똑같진 않더라도 향후 인도 전체에 성장주도 정책이 많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세제 개혁,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순철 교수**: 모디가 세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인도 전체 인구의 3%만 내고 있어서 세수가 충분하지 않아 인도 정부는 소비세, 판매세 등의 간접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일거래세, 즉 상품세와 서비스세를 하나로 합쳐서 GST(Goods & Services Tax)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거래세를 도입해서 외국기업들이 세금을 낼 때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법이 있는데도 정확한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냈는데 또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당국의 관리와 사이가 좋으면, 세금이 깎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보수세력과의 대결도 전망되고, 실제로 이런 세제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거래 비용이 늘어나고, 재정부족을 메꾸려는 노력이 시작되면서 세무조사가 강화되어 엄청난 세금을 기업들로부터 걷게 된 것입니다. 회의당이 실패한 것은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돈이 없었기 때문이고, 재정 확보를 위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결국, 경제성장이 되어야만 이런 모든 정책들이 소용이 있을 것입니다.

## 술이 없는 구자라트 주에서는 인도에서 안 되던 것이 된다

**이대우 수석연구위원**: 여러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일단 모디의 실행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델리에 주재할 당시 여러 주의 투자유치 연락사무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찾아온 사람을 소 닭 보듯 별 관심 없이 대합니다. 그런데 구자라트 주의 사무소를 방문했더니,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구자라트 주 정부의 담당 국장이 전화를 걸어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연락이 가고, 피드백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김응기 대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자라트 산업개발공사에 가서 디렉터와 이야기하고 5시간 동안 가는 사이에 전화가 왔습니다. 매니징 디렉터가 와서 저희를 영접할 거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래도 이번에 인도국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여 의사결정권이 생겨 확실히 모디의 성공모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인도에 갔을 때 실제로 모디를 선거유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모디는 중국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모델을 쫓아간다면 개혁 조치가 좀 더 가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순철 교수**: 그런데 왜 우리는 구자라트 주에 진출하지 않을까요? 고려는 하지만 실제로 진출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현대자동차도 구자라트 주 진출을 고려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대우 수석연구위원**: 사실 마하라슈트라 주에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자라트 주는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김응기 대표**: 예전에 국내 한 업체의 인도 진출 컨설팅을 하면서 구자라트 주에 진출하는 것을 도우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풍력발전 업체였는데, 마하라슈트라 주, 안드라프라데시 주, 타밀나두 주, 구자라트 주를 가 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엔 구자라트 주의 조건이 확실히 최고였습니다. 구자라트 주에는 철강산업도 있고, 항구도 있고, 윈드 팜들이 있으니 시장도 있고, 최적의 조건이였죠. 그런데 막상 실제로 투자를 할 때에는 마하라슈트라 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정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구자라트 주는 dry state로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게다가 먹을 음식이 별로 다양하지 않아요. 주 인구의 90%가 채식주의자들입니다. 한 마디로 감정적으로 너무 싫은 것이죠. 황량한 황무지와 갯벌, 수풀, 염전 등을 한참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물론 구자라트 주에서 완전히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여권을 보여주면 1개월에 맥주 몇십 병, 이런 식으로 한정된 양을 살 수가 있지요. 하지만 쉽게 거리에서 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류에 대한 세금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세 수입이 가장 많은 주입니다.

**조충제 팀장**: 구자라트 주는 생산조건이나 소비조건, 환경은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오히려 황무지라서 이권이 없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모디는 구자라트 주에서 인도에 만연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잘 안 되는 것이 구자라트 주에서는 잘 됩니다. 구자라트 주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의지와 정책에 따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하면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친기업 자유화 정책을 쓰면서도 동시에 기업에 책임을 물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도국민당이 재벌을 위한 정당이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모디는 투명성을 더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환경, 세금의 투명성, 토지, CSR 등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도가 중국과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김응기 대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디의 행적을 볼 때 인도는 미국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과는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사업하기에 보다 좋아진 인도가 남의 마당이 되고 우리가 기웃거리는 과객 형편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생깁니다. 우리가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어 좀 더 앞서서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이순철 교수**: 모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듯합니다. 무역정책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對인도 FDI는 우리(0.65%) 보다도 낮아 0.18%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투자를 인도 정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신정부에서 허가를 해 준다면, 아마도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전자, 가전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진출한 우리 업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조충제 팀장**: 인도는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분류해서 중국의 對인도 투자에 대해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62년 중국-인도 전쟁의 역사와 현재 인도의 내수시장을 중국산이 모두 잠식하여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도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가 인프라를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저가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산업재, 통신장비, 발전장비 등 중국 제품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러다보니 비정상적인 비관세장벽을 통해 중국제품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장비가 도청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클레임을 하기도 하고요. 투자 뿐 아니라 건설도 건설노동자에게 비자를 잘 발급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타격을 주었습니다. 표적은 중국인데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면 남의 잔치를 구경하는 것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게 있다면, 2007년에 모디가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주 총리가 방한했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반면 모디가 일본은 매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통산산업부 장관이 리셉션을 하고요. 우리가 인도를 홀대한 사이, 일본과 인도는 서로 돈독해지고 있죠. 우리 정부가 좀 더 인도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서야 할 때

**김응기 대표**: 모디가 방한했을 때 5일 동안 아주 빠듯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소와 새만금 간척지도 다녀오고, 우리나라를 배우겠다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모디가 최근 연설 중 "2010년 커먼웰스 게임을 통해 우린 부패를 얻고 한국은 영광을 얻었다"고 말한 걸 들었습니다. 모디가 한국의 역동성을 알고 있는 것이니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모디가 한국에 왔을 때에 정부 기관에서 구자라트주와 업무협정을 체결했고 한국 대표단도 구자라트에 몇 번 방문했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 투자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가진 상대를 대할 때에는 보여주기 위한 것은 지양하고, 작더라도 실천적인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충제 팀장**: 2011년에 격년제로 열리는 Vibrant Gujarat 행사에 참여해서 구자라트 연구기관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여러 대학의 리서치 센터들의 업무협정을 모아서 체결하는 행사였는데, 모디 총리가 직접 참석하고 행사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언론에서는 모디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너무 큰 돈을 들인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디의 실행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인도와 우리의 국민과 의원수를 비교해보면, 인도는 12억 4천만 명에 543명이 의원이고, 우리나

라는 5천만 명에 298명입니다. 인도에서는 한 의원이 맡아야 하는 국민 수가 엄청나게 많고 너무 바쁜데, 우리는 인도인을 게으르고 느리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사실은 우리것이 별 매력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 · 중 · 일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인도 정부의 국장에게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요하게 자리매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늦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아무리 말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 인도의 농업, 인프라, 스마트 씨티에 주목하자

**김응기 대표**: 인도에서 저도 커피를 수입하는데, 인도 업체 회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회장은 바쁘다고 아랫사람을 만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던졌지요. 원래는 회장 밑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다음날 사무실로 방문하니 회장이 갑자기 있던 약속이 취소가 되어서 사무실에 있다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 관심이 생기니 회장이 만나겠다고 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인도 측의 필요에 맞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제안을 우리가 먼저 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도에서 연락을 안 한다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초 대통령 방문 때 논의되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가 먼저 챙겨서 협상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자라트 주에서 모디가 농업을 먼저 발전시켰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인도 전역에서 농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중국과 유대가 깊어서 연 400~500명씩 중국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농업 기술, 농가공, 2·3차 식품가공산업에 있어서 인도와 협력하면 어떨까요? 이미 농우바이오와 아시아종묘가 진출해 농장을 만들고 인도식으로 종자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무르익으면 인도에서 생산하여 종자수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우 수석연구위원**: 구자라트에서 했던 것처럼 인도 전역에 도로, 전기, 수도가 공급되도록 한다면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득을 볼 것입니다. 그동안 석탄 채굴이 금지되고 발전소 건설 역시 인허가가 나지 않았었는데, 그것들이 풀린다면 인프라 건설 및 장비 공급 업체들의 전망이 밝을 것입니다.

**조충제 팀장**: 스마트 씨티 100개를 건설하는 것도 에너지와 환경, 주거지와 근무지 연계, 대학과 산업의 연계 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과거 정부에서 도로에 치중했다면 이번에는 철도로 4대 도시를 연결한다고 하니 우리도 철도 건설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델리 메트로철도공사의 프로젝트는 기반공사에서 광케이블과 네트워크, 상하수도 등이 먼저 깔리는 신도시 컨셉입니

다. 마하라슈트라 개발공사와 협력해서 우리 정부가 무료로 슬럼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순철 교수**: 저도 스마트 씨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성화를 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인프라도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므로 민간투자, 외국인투자까지 합쳐야 합니다. 스마트 씨티가 건설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런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응기 대표**: 7~8년 전에 인도 뱅갈로르에서 지하철, 버스, 철도 등이 연결되는 복합운송시스템에 대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제가 연락을 몇 번 했는데, 여러 기업과 공사 등의 관할이 불분명하다 보니, 결국 우리측에서 호응을 못했습니다. 즉,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결국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 신정부에서 스마트 도시 건설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미리 패키지화해서 관련 업체나 기관을 모아 스마트 씨티 사업단을 만들어 인도 정부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재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9개 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스마트 씨티가 건설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 모디의 신정부, 인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자

**조학희 실장**: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 수석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는 분위기인데, 연구원과 유관기관들이 앞서서 인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기업들에게 막연한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도 진출은 여전히 어렵지만 이 기회에 한국형 진출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개격파로 진출하면 너무 힘들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야나 진출지역 등에 관해 전략을 짜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겠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아직 작지만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응기 대표**: 일단, 우리 언론이 모디에 대해 거지, 천민 출신이라고 자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삼가고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인도가 볼 때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하는 대상국 중 하나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모디 당선 축하선물로 우리가 먼저 인도 망고를 수입하도록 개방하면 어떨까요? 셋째, 깊은 연구 없이 무모하게 인도에 진출할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다음 단계의 인도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충제 팀장**: 사실 인도는 만성화된 인플레이션 문제와 공급망 문제, 수퍼 엘니뇨라는 이상기후와

만성 재정적자 등으로 경기부양책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현재 중앙은행 총재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성장 친기업 정책으로 가려면 정책적인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것 말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민영화와 공공부문 명예퇴직 등을 쓸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큰 규모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순철 교수**: 우리 정부도 중국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인도에 대한 관심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중국에 관한 부서는 외교부에도 2개나 있고 10명이 넘게 담당하지만, 인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는 인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담당하는 사람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정부의 구조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조학희 실장**: 좋은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인도에서 '모디(Modi)'가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 만큼 인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수정(modify)'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인도 회사법(The Company Act, 2013) 해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여성임원 고용 의무화

사단법인 인도연구원 (www.인도연구원.kr)



〈편집자 주〉 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2014년 3월호부터 8월호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정된 인도 회사법 해설이 연재된다.

〔목차〕

〈1회〉 회사법의 개정 배경 및 특징
〈2회〉 법인 설립 및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신규사항
〈3회〉 강화된 회계 원칙 및 감가상각
**〈4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여성임원 고용 의무화**
〈5회〉 새 회사법에 대한 인도 기업들의 동향 및 대처방안
〈6회〉 법인설립, 운영을 위한 필수 주요 법규 요약

인도에서는 지난 5월 정치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있었다. 친시장, 친기업 성향을 갖고 있는 BJP정당이 인도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간디가문이 이끌고 있는 국민회의당을 대패시키고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였다. 여기에는 친환경 경영을 강조하는 모디(Modi)의 강한 리더십이 있었다. 즉 앞으로 모디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하에서는 기업의 경영과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발전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인도 회사법 개정내용 설명의 일환으로 연재되는 이번 호에서는 친환경 경영을 강조하는 모디의 경제정책 이론에 중요 사항이기도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적용에 대한 기준 및 이행조항, 그리고 여성임원 고용의 의무화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 인도 CSR의 도입 배경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기업이 윤리적으로 활동하고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근로자와 그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와 사회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 기업의 CSR 활동은 산업화 이전 종교와 문화 등으로 인도인들에게는 친숙한 개념으로 경제발전이 시작된 1980년대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전략적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도기업들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또는 책임적 활동보다는 자선적 성격이 강한 활동에 주력하여 왔다. 더욱이 인도정부는 정부 자체 활동만으로는 사회전반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사회발전에 가장 많은 지원이 가능한 기업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이제 인도의 CSR은 더 이상 자선 활동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보다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으로 기업에게 CSR을 의무 적용하게 되었다.

## CSR 의무화 적용 기업의 기준 및 이행 조항

이번 개정 회사법에 의해서 법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기업은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인도 내의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이며 인도를 제외한 해외 법인의 자산 및 규모 조건과는 무관하다.

[CSR 의무 적용 대상 기업의 기준]

| 대상 항목 | 해당 범위 | 비고 |
|---|---|---|
| 순자산규모 | 50억 루피 (약 900억 원)[1] 이상 | |
| 매출액 | 100억 루피 (약 1,800억 원) 이상 | |
| 순이익 | 5,000만 루피 (약 8억 5천 원) 이상 | 세후 |

※ 상기 사항에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직전 회계연도 3개년의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사회적 책임 활동에 반드시 사용해야 함
※ 외국회사의 지점, 현장 사무소 형태의 회사도 포함
※ 순이익 제외 항목: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 다른 인도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액
※ 연속 3개년 회계연도 동안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미 적용
※ 의무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적자일 경우에도 보고의무는 필수임

CSR 의무화 적용기업은 그 즉시 CSR 위원회(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를 구성하고 회사의 해당 CSR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최근 1루피의 대 원화 환율은 17원~18원 정도이다.

[CSR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상세 내용 | 비고 |
|---|---|
| 3인 이상의 독립 이사로 구성 | • 사외이사 1인 포함 필수<br>• 비상장 기업은 사외이사 임명 불필요<br>• 이사회 구성원이 2명인 사기업은 CSR 위원회도 2인으로 구성 가능<br>• 외국회사는 2명 이상의 인원으로 CSR 위원회 구성하며, 대표자 1인을 포함한 회사가 지정한 다른 사람으로 구성 |
| 정책 수립 및 승인 | • 예산 배정<br>• Board's Report에 CSR 보고서 포함<br>• 외국회사의 경우 기업등록소(Registrar of Companies)에 보고서 포함 |
| 보고 및 운영 책임 | • CSR 정책, 프로젝트, 수행에 관련된 보고서를 회사 홈페이지, 사내게시판에 게시<br>• 활동내역 모니터링 |



또한 인도 기업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CSR 활동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극빈층 근절을 위한 노력
2. 교육 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
3. 성별격차 해소 및 여성 인권 보장
4. 아동사망률 감소 및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5. 면역결핍 바이러스 후천적 면역 결핍 증후군,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를 위한 활동
6. 환경 보호 활동
7.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지원활동
8. 사회적 기업 지원 활동
9. 인도 정부가 설립한 CSR관련 펀드에 기부

위의 활동의 범주를 바탕으로 인도 내에서 수행한 것만 인정되며, 회사의 고용인 및 그 가족 또는 직간접적의 정치적 목적으로 수행된 활동 및 지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CSR 활동은 등록된 단체, 회사 또는 그 회사의 관계사가 설립한 비영리 회사가 수행할 수 있으나 CSR과 관련된 유사한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3년간의 수행실적(Track Record)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가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용할 수 있으나 이 비중은 CSR 총 지출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회사가 지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용의 세금감면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비용 지출에 대해서 5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용 인정과 공제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것은 CBDT(Central Board of Direct Taxes)를 통해

서 추가로 공지되고 있으며 수시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2)]

## 인도 CSR의 우수 사례

현재 법인, 지점, 지사를 포함하여 인도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은 자영업 수준의 서비스 형태까지를 망라한다면 약 700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번 회사법의 개정으로 즉시 적용 대상기업은 일부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 중 일부 기업은 이미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이들 우리 기업의 우수 활동사례와 함께 인도 내 기업의 경우를 연구한다면, 이후 여타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계획 및 대비가 가능하다.

타타(Tata)그룹은 인도의 대기업 중 가장 활발한 CSR 활동을 하며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인도기업이다. 타타의 설립자는 인도 국민의 편안한 삶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사업철학을 가지고 인간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관련 사업을 통해 이러한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타타스틸의 경우 제철소 건립 주변지역의 800개 촌락을 대상으로 3,000만 달러를 지역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병원, 학교 설립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타타스틸의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활동과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기업의 성공에는 지역의 발전이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인도정부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의 CSR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도 인도 내에서 모범이 되는 CSR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1998년 인도 시장에 진출 이후 꾸준하게 인도 국민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적극적인 CSR 활동을 통해 인도에서 성공한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모터재단을[3)] 설립하여 학교 시설 보충, 보건 의료, 교육, 직업교육, 환경, 도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CSR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한 대가 판매될 때마다 재단에 100루피씩 기부금으로 축적하여 이 금액은 모두 CSR 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4)] 이러한 활동으로 현대자동차가 입주해 있는 첸나이 지역에서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호감도 또는 인지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새로운 CSR규정이 적용된다면, 현재 수준의 CSR 활동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인디아는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CSR 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관련 자료로, PwC India에서 CII(인도산업연맹)와 공동으로 발간한 "Handbook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ndia"이 있다. 본문은 www.인도연구원.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Hyundai Motor India Foundation
4) 최근 HMIF는 2008년 해피 무브(Happy Move)라는 글로벌 청년사회봉사단을 발족하여 매년 인도에 주기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 여성임원 고용의 의무화

CSR과 함께 새롭게 규정되어 이슈화 되고 있는 개정사항은 여성임원 고용의 의무화 부분이다. 인도 정부는 연 매출 30억 루피의 규모 회사에서는 3년 안에, 모든 상장기업은 개정일로부터 1년 안에 여성 임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 되었다.

[여성 임원 고용 의무적용 기업의 기준 및 고용 시기]

| 해당 범위 기업 | 의무화 사항 | 고용 시기 |
|---|---|---|
| 모든 상장기업 | 여성 임원 고용 | 1년 이내 |
| 연매출 30억 루피(약 510억원) 이상 | | 3년 이내 |

현재 인도 주식시장 SEBI(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에 편입된 1,456개 회사 중 966개의 회사가 여성 임원이 고용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고용되어 있는 여성 임원의 비율은 약 5.1% 이며 2014년 10월 1일까지 새로운 회사법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약 1,000명의 여성 임원이 즉시 고용되어야 한다. 추후 3년 이내에 필요한 여성 임원의 수는 약 6,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입법화는 각종 규제와 수많은 법규를 다뤄야 하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미치는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SR에 해당되는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한 자선적 활동으로는 앞으로 CSR의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CSR 활동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CSR 활동은 지양되고, 좀 더 사회 발전적 활동으로 CSR 활동을 전문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여성 임원을 전혀 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 임원 고용이라는 난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 않아도 인도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인도의 새로운 기업법으로 인하여 기업 내에 새로운 대응조직과 함께 여성 임원 고용의 의무화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인도에서 기업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도에서 인정받는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즉흥적이거나 단발성에 그치는 단순 구호활동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기업의 활동에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인력관리에 속타는 주중 한국기업

## - 10개 중 9개 인력난, 3년 내 절반 이직 등 이중고 -

최 용 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 입지 선택 기준은 인력 여건

우리 기업들의 對중국 투자액 중 사상 최고액(70억 달러)을 기록한 삼성반도체 공장이 지난 5월에 완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하였다. 입지를 놓고 오랫동안 저울질을 하다가 시안(西安)으로 결정했을 때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시안은 대형 첨단기업이 입주할 여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큰 힘이 되기도 했지만 내면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시안 인근에 4년제 대학이 28개에 달해 그 곳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매년 20만 명이고, 이 중 IT전공자가 2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갸웃거렸던 고개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만큼 인력난으로 시달리는 중국내 한국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U턴하거나 임금수준이 중국의 절반정도인 베트남과 인도로 기수를 돌리는 기업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국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4~5년 후에 임금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뛸 수 있다는 전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인력의 생산성을 최소한 한국인의 80~9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향후 중국에서 생존하려면 인력문제를 경영의 핵심변수로 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항목이 된 것이다. 더불어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인력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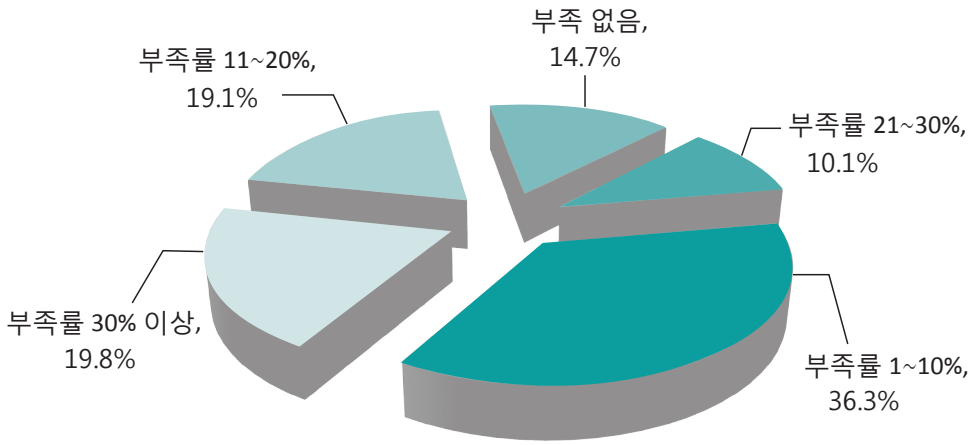
## 인력부족 상존 속 잦은 이직

지난 5월에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주중 한국기업 278개사와 1,025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국내 한국기업 인력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의 인력관리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응답기업 10개 중 9개 기업의 비율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고작 14.7%에 불과하여, 나머지(85.3%)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력 부족률이 30% 이상이라는 기업도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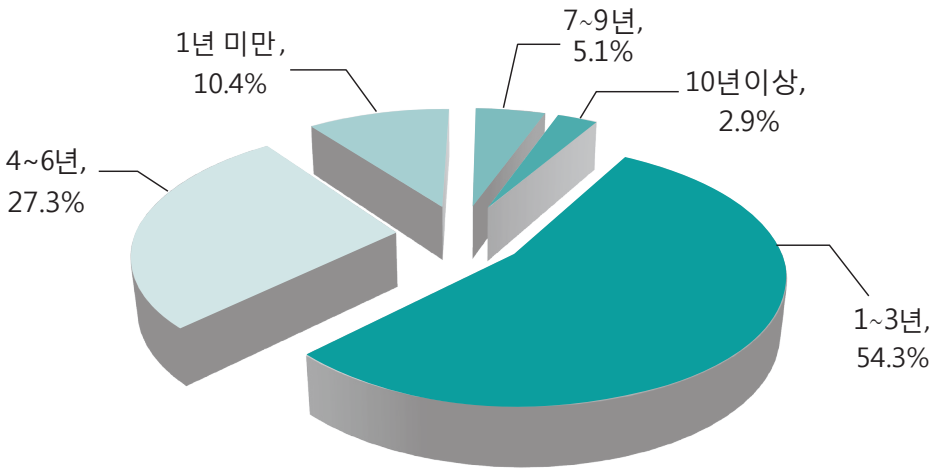
중 1개로 나타나 다소 충격적이다.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인력관리 애로를 부채질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기존 직원들의 빈번한 이직과 높은 임금 인상률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40.6%(복수응답)가 가장 큰 애로로 직원들의 빈번한 이동을 언급했으며, 그 다음으로 임금인상 과다(33.5%), 적임자를 찾기 힘든 인재 수급 불균형(29.1%), 고된 일을 기피하는 성향(19.1%)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더욱이 전체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신규 채용 후 1~3년 사이에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경영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응답기업의 54.3%가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1~3년이라고 응답했으며, 4~6년이라는 비율도 27.3% 달했다. 10명 중 8명이 6년 내에 회사를 옮기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프라를 갖추더라도 인재부족과 빈번한 이직에 따른 낮은 업무 숙련도로 인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인력 부족률]




[근로자들의 평균 재직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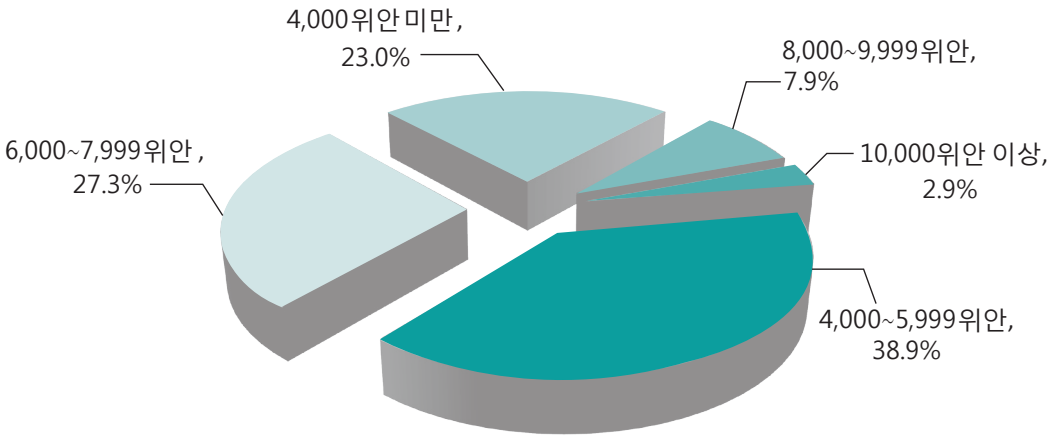


## 임금인상률 따라잡기 버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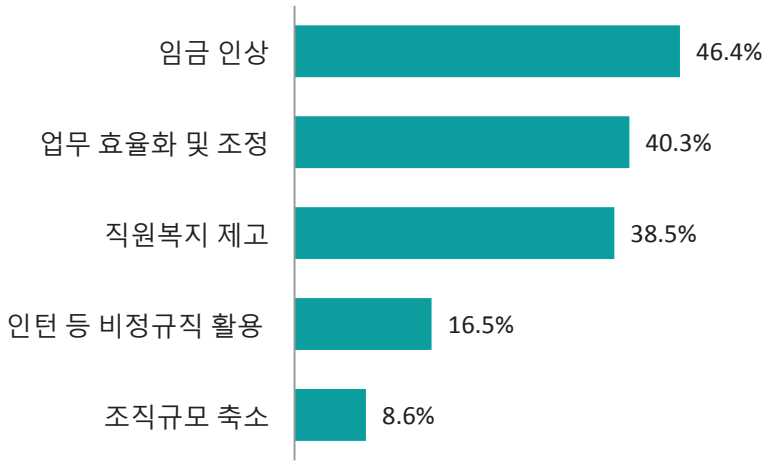
임금수준의 뜀박질도 계속되어 기업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연평균 임금인상률이 10%대 초반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연평균 임금인상률로 10~14% 구간을 언급한 기업이 39.9%였으며, 20% 이상이라는 기업도 7.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누적 임금인상률이 50%를 상회한 기업의 비율이 27.0%에 도달했고, 21~50%를 손꼽은 기업도 33.8%를 기록하였다. 이런 인력난(임금인상 포함)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과 업무효율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6.4%가 임금인상을 통해 인력문제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업무효율화(40.3%)와 복지증진(38.5%)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답안을 내밀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우수한 인재를 구하려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계 기업들의 평균급여는 중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대상 한국기업 10개 중 4개는 평균 월급여로 4천~5,999 위안을 내세웠으며, 6천 위안이 넘는다는 기업도 비슷한 비율(38.1%)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3년 중국 전체 평균임금인 3,806 위안(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졸자의 초임이 4천 위안 미만이라는 비율과 4천 위안 대라는 비율이 각각 37.1%와 36.3%에 달해 주류를 이루었다.

[직원들의 평균 급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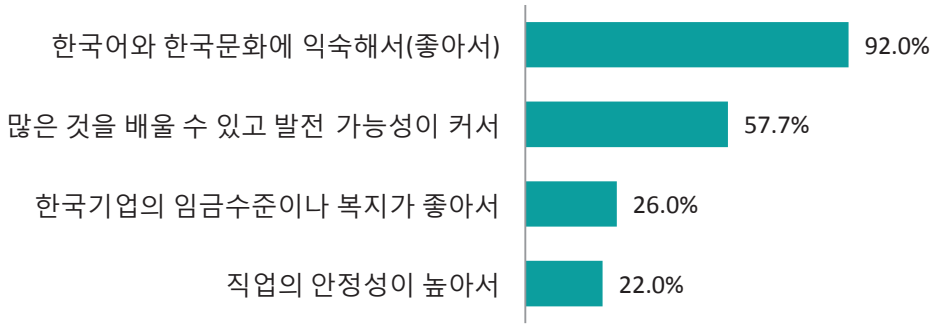
[인력난에 대한 대응방안(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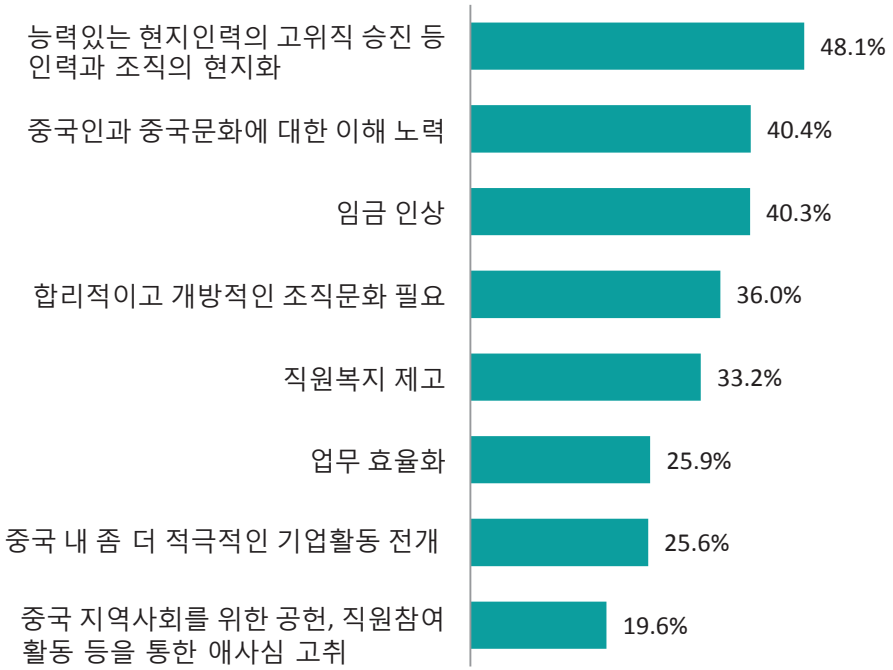

한편 구직자들이 중국내 한국기업에 취업하려는 이유는 한류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 지원이유로 응답자의 92.0%(복수응답)가 '한국어 능력을 활용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며, '업무상 배우는 것이 많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비율(57.7%)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기업 근무를 선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유로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66.2%), 야근도 많기 때문(64.8%)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현지채용 인력의 인사정책상 배려와 현지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직자들은 현지채용 직원에 대한 고위직 승진(48.1%)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40.4%)와 임금인상(40.3%)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직자들은 기업에 대한 선택기준으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한 비율이 78.0%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임금(51.8%), 회사의 규모와 브랜드파워(44.8%), 복지(44.4%)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기업에 취업하려는 이유(복수응답)]



[한국기업들의 인사관리상 개선사항(복수응답)]




## 성과주의 보상과 교육 확대로 생산성 향상

이번 조사로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이 인력난과 함께 직원들의 잦은 이직에 시달리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의 비율이 85.3%에 달해 지역과 업종의 구분 없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 것이며, 채용인력 중 절반이상이 3년 이내에 이직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하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임금, 복지, 업무혁신 등 다각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인력부족이 중국 비즈니스의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재 채용 및 관리를 양이 아닌 질적으로 전환하고 급여에 성과주의를 과감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승진문제 해결과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주재원 위주의 고위직 관행을 타파하면서 인력의 현지화를 도모해야 한다. 고위직 승진은 애사심을 심어 주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내 파견근무와 한국인 직원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긴요하다. 기본적으로 한국 본사와 중국법인의 1인당 생산성에 대한 차이가 없도록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면서 업무관행과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이달의 BRICs

BRICs 4개국의 성장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선진국 수요회복으로 중국 · 인도 · 러시아 수출은 증가, 향후 브라질 월드컵, 인도 신정부 출범 등으로 성장률 증가 전망

| | |
|---|---|
| 브라질 | ○ 1분기 경제성장률 1.9%로 소폭 둔화<br>○ 4월 무역수지 5.06억 달러 흑자 기록<br>○ 3월 산업생산 전년동월 대비 0.9% 감소 |
| 러시아 | ○ 4월 GDP 성장률 1.1% 증가<br>○ 4월 소비자물가 7.3% 상승하며 인플레 압력 지속<br>○ 4월 수출 6.0% 증가하며 상승폭 확대 |
| 인 도 | ○ 2013-14 회계연도 GDP 성장률 4.7% 기록<br>○ 4월 수출 5.3% 증가, 수입 15.0% 감소<br>○ 4월 도매물가상승률 5.2%, 소매물가상승률 8.59% 기록 |
| 중 국 | ○ 4월 소매판매, 투자, 생산 등 실물지표 소폭 둔화<br>* 소매판매 11.9%, 고정자산투자 17.3%, 생산 8.7%<br>○ 5월 수출은 7.0% 증가하며 상승폭 확대<br>* 핫머니 규제로 왜곡되었던 대홍콩 수출이 정상적으로 회귀 |

# 브라질

## 1. 경제 동향

### 1분기 경제성장률 1.9%로 둔화세 지속

● 올 1분기의 전년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9%로 전분기(2.2%)에 비해 소폭 둔화

*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0.2%

● 1차 산업이 2.8%, 2차 산업이 0.8%, 3차 산업이 2% 증가

– 세부적으로 콩(6.3%)과 쌀(7.7%)의 생산이 증가하고 IT서비스(4.4%) 등이 증가한데 비해 제조업(−0.5%)과 건설업(−0.9%)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

● 투자(고정자본형성)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를 견인

– 고정자본형성이 2.1% 감소, 순수출과 정부지출, 가계소비는 각각 2.8%, 3.4%, 2.2% 증가

### 3월 산업생산 전년동월 대비 0.9% 감소

● 2월 상승세(5.0%)를 이어가지 못하고 3월 산업생산은 0.9% 감소

* 전월 대비로는 0.5% 감소하였으며 지난 12개월간 누적 증가율은 2.1%

– 브라질 자동차 생산이 급감(−13.6%)하면서 전체 산업생산 감소를 견인

– 이외에도 기계 및 설비(−7.8%), 금속 제품(−8.2%), 전기 기기(−8.3%), 직물(−5.8%), 기타운송장비(−5.8%)의 생산 감소가 산업생산 하락에 영향

– 반면,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서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9.6%), 광업 및 채석산업(8.0%), 식품(5.0%), 코크스, 석유 제품 및 바이오 연료(4.3%)의 생산은 성장세를 보임

● 자본재(−8.4%)와 중간재(−0.1%)의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반면, 소비재의 생산 증가율은 0.1%로 소폭 상승

〈산업생산 증가율〉

〈3월 유형별 산업생산 증가율〉

(단위 : %)

| 구 분 | 전월 대비 | 전년동월 대비 | 최근 12개월 누적 |
|---|---|---|---|
| 전산업 | −0.5 | −0.9 | 2.1 |
| 자본재 | −3.6 | −8.4 | 8.9 |
| 중간재 | 0.1 | −0.1 | 0.7 |
| 소비재 | 0.1 | 0.1 | 3.2 |
| − 내구재 | −2.5 | −4.6 | 3.9 |
| − 비내구재 | 0.0 | 1.7 | 3.0 |

자료 :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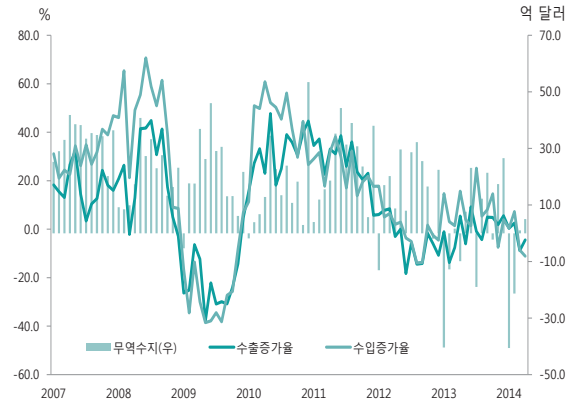
## 4월 무역수지 기존 전망치보다 2배 이상 높은 5.06억 달러 흑자 기록

- 수출은 197.2억 달러, 수입은 192.2억 달러로 4월 무역수지는 총 5.06억 달러의 흑자 기록

-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4.4%, 수입은 11.1% 감소하며 총 교역액은 줄어들었으나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한 탓에 무역흑자 기록
  - 반제품 및 가공품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구리제품(−68.1%), 화석연료(−49.8%), 설탕(−45.1%), 미가공 알루미늄(−43.4%), 자동차(−37.6%)의 수출이 크게 감소
  -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료 · 윤활유의 가격이 하락하며 출하량이 감소한 것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자본재(−5.6%), 소비재(−10.8%), 원자재(−10.0%)의 수입이 모두 감소함

- 2014년 1~4월 누계로는 55.66억 달러의 무역적자 기록

〈수출입 증가율〉




〈주요 수입품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 월 | 자본재 | | 소비재 | | 원자재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 | 2013 | | | |
| 4 | 4,472 | 13.5 | 3,592 | 20.1 | 9,372 | 17.8 |
| 5 | 4,494 | −5.4 | 3,314 | −4.0 | 9,143 | 4.8 |
| 6 | 4,529 | 18.4 | 3,394 | 19.2 | 8,585 | 6.2 |
| 7 | 4,543 | 17.2 | 3,635 | 16.1 | 9,590 | 15.4 |
| 8 | 4,215 | −0.4 | 3,677 | 2.5 | 9,921 | 3.6 |
| 9 | 3,963 | 2.6 | 3,386 | 7.7 | 8,985 | 11.2 |
| 10 | 4,814 | 4.7 | 4,140 | 10.0 | 10,087 | 6.4 |
| 11 | 4,230 | 3.7 | 3,294 | −3.5 | 8,901 | 4.6 |
| 12 | 4,249 | 7.8 | 3,134 | −0.2 | 7,722 | 1.5 |
| | | | 2014 | | | |
| 1 | 4,627 | 7.0 | 3,467 | 8.8 | 8,693 | 3.2 |
| 2 | 3,635 | −3.5 | 3,145 | 13.3 | 7,681 | 5.4 |
| 3 | 3,745 | −7.6 | 3,315 | −3.5 | 8,177 | −3.7 |
| 4 | 4,224 | −5.6 | 3,206 | −10.8 | 8,431 | −10.0 |

자료 :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 3월 소매판매 증가율 -1.1%로 소매판매 감소

- 3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1.1%를 기록, 2013년 3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하던 소매판매가 감소세로 전환
  - 자동차(-16.0%), 의류/신발(-7.3%), 사무기기(-4.9%), 일용품(-3.8%), 식음료(-2.8%) 등의 판매가 감소
  - 이 중 전체 소매판매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식음료로써, 2013년에는 부활절이 3월이었으나 올해에는 4월로 늦춰짐에 따라 3월 식음료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감소
  - 건자재와 자동차 판매가 포함된 확장 소매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5.7% 감소
- 2014년 1분기 누적 소매판매 증가율은 4.5%
- 지역별로는 미나스제라이스(-9.5%), 파라나(-6.8%), 리오데자네이로(-5.1%), 상파울로(-0.8%) 등 구매력이 높은 주에서 마이너스 확장 소매판매증가율 기록

〈지난 12개월 소매판매 증가율〉

(단위 : %)

| | 전체 | 연료/윤활유 | 식음료 | 의류/신발 | 가구/가전 | 의약/화장품 | 사무기기 | 일용품 | 건자재 | 자동차 |
|---|---|---|---|---|---|---|---|---|---|---|
| 2013 년 | | | | | | | | | | |
| 4월 | 1.6 | 8.4 | -5.4 | 10.3 | 9.1 | 14.9 | 5.2 | 7.1 | 16.3 | 22.4 |
| 5월 | 4.4 | 8.9 | 2.6 | 1.0 | 6.3 | 8.2 | -0.4 | 8.4 | 5.0 | 4.0 |
| 6월 | 1.7 | 8.2 | -0.7 | -3.2 | 2.9 | 6.7 | 6.9 | 6.8 | 4.9 | -9.4 |
| 7월 | 6.0 | 7.8 | 2.7 | 6.0 | 11.0 | 11.6 | 8.3 | 11.7 | 10.4 | -1.8 |
| 8월 | 6.2 | 5.4 | 5.6 | 3.7 | 7.9 | 9.8 | 7.9 | 8.6 | 4.0 | -12.7 |
| 9월 | 4.3 | 4.2 | 1.0 | 0.4 | 7.4 | 11.9 | 16.0 | 14.9 | 10.3 | 13.9 |
| 10월 | 5.4 | 6.6 | 3.3 | 3.7 | 5.0 | 11.4 | 10.6 | 12.4 | 6.9 | -4.4 |
| 11월 | 7.1 | 8.9 | 5.8 | 6.1 | 9.1 | 12.3 | 10.8 | 6.6 | 5.1 | 4.4 |
| 12월 | 4.0 | 5.7 | 2.4 | 3.2 | -0.9 | 12.4 | 9.5 | 11.2 | 5.5 | -0.2 |
| 2014 년 | | | | | | | | | | |
| 1월 | 6.2 | 6.9 | 5.5 | 4.0 | 5.8 | 13.6 | -4.6 | 7.6 | 3.9 | -1.8 |
| 2월 | 8.5 | 13.5 | 5.1 | 7.4 | 10.5 | 15.2 | 7.1 | 17.2 | 10.1 | 3.7 |
| 3월 | -1.1 | 4.0 | -2.8 | -7.3 | 3.8 | 9.6 | -4.9 | -3.8 | 1.4 | -1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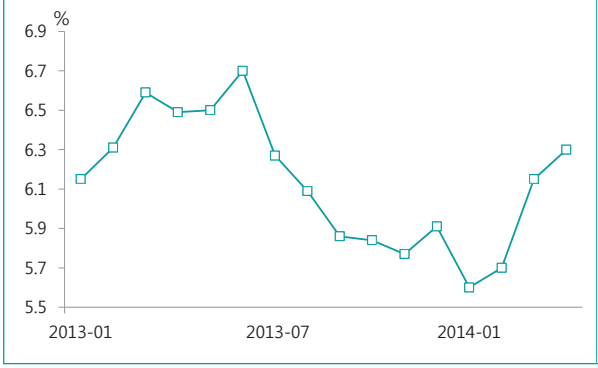
자료 :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6.28%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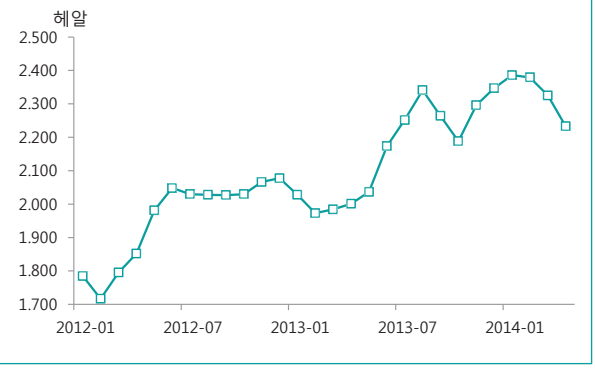
- 4월 브라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28%로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브라질 통화정책위원회가 꾸준히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개월 중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 식료품의 가격은 1.2% 상승하였으며, 토마토(-14.23%)와 카사바(-16.31%) 등 주요 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며 3월 1.92%보다 낮은 가격상승을 나타냄

-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은 0.67%를 기록

〈소비자물가 상승률〉




〈헤알/달러 환율〉




자료 :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CEIC

## 4월 브라질 실업률 4.9%로 소폭 감소

- 2개월 연속으로 실업률이 0.1%p 감소하였으며, 실업인구는 전년동월에 비해 17% 감소
  - 그러나 실업률이 낮아진 원인은 고용 증가가 아니라 취업을 포기한 인구가 늘었기 때문

    * 취업자 및 취업희망자의 수는 전년동기 대비 0.85% 감소

- 평균실질소득은 전년동월 대비 2.6% 상승한 2,028헤알로 전월에 비해 0.6% 감소
  - 건설업 종사자들의 임금이 전년동기 대비 10.8%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2. 시장 정보 및 이슈

## 일부 국가들 브라질 마토 그로수(Mato Grosso)산 소고기 수입제한 발동

● 마토 그로수 내 비정형 광우병 발발로 일부 국가들이 브라질 및 마토 그로수산 소고기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함

＊ 비정형 광우병은 전형적 광우병과 달리 오염된 사료에 노출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소의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5월 8일 페루는 브라질산 소고기에 대해 180일 금수조치를 내림

– 5월 12일 이집트, 이란, 알제리는 마토 그로수산 소고기에 한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

● 브라질 보건당국은 문제가 된 사망한 소는 이미 소각되어 음식 공급 체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힘

## 브라질, 對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 수입 증가 전망

● 對아르헨티나 자동차 부문 양자협정 연장에 따라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자동차부품 수입량을 늘리는 반면, 對독일 수입량을 축소시킬 전망

– 이러한 수입 대체는 브라질내 차량 생산 비용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함

● 지난 5월 8일 양국은 6월 30일 만기 자동차 자유무역협정의 2년 연장에 동의하였으며 완성차 수입부문에서 세부적 내용 변경 조율 중

– 양국의 자동차 자유무역협정은 플렉스(flex) 시스템으로 그 지수는 1.95였음

＊ 플렉스 지수는 아르헨티나 수입에 대한 브라질의 무관세 수출을 결정하는 지수

＊ 1.95 = 아르헨티나의 對브라질 자동차 수출 1백만 달러 당 브라질은 수입 관세 없이 아르헨티나에 1.95백만 달러 수출 권리를 가짐

– 아르헨티나는 플렉스 지수의 하향 조정(1.30)을 주장하는 반면 브라질은 이를 거부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eBay, 브라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본격화

- 미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eBay는 5월 6일 포르투갈어 사이트를 런칭하며 브라질 시장 진출 본격화를 알림

  * 이는 eBay의 첫 남아메리카 진출

  – 지난해 말, eBay는 브라질에 eBay Mod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런칭, 소비자반응 및 시장조사 후 9개월여의 준비 끝에 브라질 시장 진출 결정

  – 향후 SNS와 광고캠페인을 통한 적극적 홍보 및 브라질 소비자들을 위한 150명의 상담원 고용 준비 중

  * 2013년 eBay의 브라질 고객수는 50만 명 증가했으며, Amazon, Aliexpress보다 많은 브라질인 접속자들을 보유

## 브라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액 증가

-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카드 산업의 성행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이 증가한 반면 수표의 사용은 감소함

  – 2013년 신용카드 거래는 50억 건, 체크카드 거래는 49억 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2.2%, 18.9% 증가함

  – 반면, 수표 거래는 전년대비 9.3% 하락함

- 2013년 신용카드 결제액은 5,340억 헤알, 체크카드 결제액은 2,930억 헤알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각각 14.7%, 23.4% 상승한 수치임

## 높은 국제유가로 인해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손실 확대 전망

- 국제유가 상승으로 페트로브라스의 석유 판매가와 국제유가 사이의 격차 확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동 사의 손실 확대가 예상됨

  – 브라질 정부가 인플레이션 규제의 일환으로 석유의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페트로브라스는 수입가보다 최대 20%까지 낮은 가격에 석유를 판매해오고 있음

  – 최근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페트로브라스 판매가와의 격차를 늘림으로써 페트로브라스의 손실은 더욱 늘어날 전망

## 브라질 맥주 및 청량음료세 인상 연기

- 브라질 정부는 월드컵 기간 중 음료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맥주 및 청량음료의 세금인상을 3개월 연기
  - 이로써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금인상은 9월 1일로 그 효력이 연기됨
  - 세금인상 연기의 대가로 주류업체 및 음료업체들은 월드컵 기간 동안 가격 인상과 노동자 해고를 하지 않기로 정부와 합의함

## 브라질, 국가경쟁력 세계 54위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년대비 3계단 하락한 54위 기록
  * 2010년 38위에 랭크된 이래로 2014년까지 총 16계단 하락하며 꾸준한 하락세
  - 이는 인프라 낙후, 전력 공급량 부족, 무역수지 악화 등 브라질 사회와 경제에 걸친 다양한 문제에 기인한 결과
  - 브라질 경제의 긍정적 요소로는 경제의 역동성 및 긍정적, 개방적 태도가 꼽힌 반면, 정부능력과 세금규정에 있어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음

〈2014 국가경쟁력 평가〉

| 국가 | 순위 | 항목별 순위 | | | |
|---|---|---|---|---|---|
| | | 경제적 성과 | 정부 효율성 | 기업 효율성 | 인프라 |
| 미국 | 1 | 1 | 22 | 1 | 1 |
| 중국 | 23 | 5 | 34 | 28 | 26 |
| 한국 | 26 | 20 | 26 | 39 | 19 |
| 러시아 | 38 | 41 | 37 | 53 | 35 |
| 인도 | 44 | 21 | 47 | 34 | 57 |
| 브라질 | 54 | 43 | 58 | 46 | 52 |

자료 : IMD (국제경영개발대학원)

## 2013년 브라질 IT시장 투자 15% 증가

- 2013년 브라질 정보기술시장은 전년 대비 15.4% 성장한 616억 달러 규모를 형성
  - 소프트웨어 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급증이 시장의 성장을 견인
  - 이로써 브라질은 2013년 IT시장규모 전 세계 7위를 기록함
    * 브라질 소프트웨어협회(ABES)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전체 IT시장의 47.4%를 차지
    * 약 1.1만개의 IT분야 기업들 중 49.8%가 IT유통 부문, 26.1%가 IT서비스 부문, 24.1%가 IT개발 부문에서 활동 중

## 브라질 가계소비 위축 2011년 이래 최악

- 5월 가계소비의욕은 전월대비 2.3% 하락하며 2011년 이래로 최저치 기록
  - 브라질 가계소비는 서비스부문과 식품부문의 인플레이션 심화와 높은 이자에 기인해 올 연초부터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음

## 재고량 증가로 인한 브라질 소매시장 침체 예상

- 1분기 재고증가로 인해 2분기 소매시장 악화 전망
  - 올해 1분기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반면, 재고는 5.5% 상승
    * 재고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년대비 각각 1.2%, 1.6% 증가해옴
  - 특히 재고량이 높은 품목은 가전제품, 컴퓨터, 핸드폰, 가구 등 고가의 품목
  - 예상보다 저조한 어머니날(5월 11일) 매출로 인하여 재고량은 더욱 증가했으며 이는 올해 중반까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반면, 소매업체들은 월드컵으로 인한 판매확대를 기대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월드컵을 통한 TV 판매 증대에도 불구하고, 월드컵경기로 인한 6월 영업일 감소는 다른 품목에 있어서 오히려 판매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자동차 생산공장 명예퇴직 실시 및 집단장기휴가 확대

● 월드컵 기간과 맞물린 자동차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브라질 자동차 업계는 생산공장 내 명예퇴직 및 집단장기휴가를 확대실시 중

– 포드(Ford),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社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조기퇴직 유도

– 르노(Renault)社는 작업자 4천 명 대상 6월 9일~30일, 6월 11일~24일 장기유급휴가를 실시하는 반면, PSA 푸조 씨트로엔(PSA Peugeot Citroën)社는 작업자 2천 명 대상 6월 18일~7월 7일 장기유급휴가를 지급

– 이는 수출량 감소와 월드컵 기간 중 국내 시장 수요 저하에 따른 재고조정을 위함

＊ 1월 ~ 4월 자동차 생산량은 106.8만대로 전년동기대비 12% 하락

# 3. 한·브라질 수출입 동향

## 4월 對브라질 수출, 수입 모두 감소

- 우리나라의 4월 對브라질 수출은 7.9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7.7% 감소
  - 201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對브라질 수출 감소
- 對브라질 수입은 4.0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6.9% 감소
- 4월 무역수지는 3.9억 달러 흑자로 2월, 3월에 비해 흑자폭 소폭 둔화
  - 우리의 對브라질 무역수지는 27개월째 흑자 유지
- 1~4월 누적으로는 수출이 6.7% 증가한 반면 수입은 19.4% 감소

〈최근 對브라질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 구 분 | | 2012 | 2013 | 2014.1 | 2014.2 | 2014.3 | 2014.4 | 2014.1~4 |
|---|---|---|---|---|---|---|---|---|
| 수출 | 금액 | 103.0 | 96.9 | 8.0 | 8.2 | 9.0 | 7.9 | 33.0 |
| | 증가율 | -13.0 | -5.8 | 15.1 | 24.3 | 1.1 | -7.7 | 6.7 |
| 수입 | 금액 | 60.9 | 55.7 | 4.9 | 4.1 | 2.8 | 4.0 | 15.7 |
| | 증가율 | -4.1 | -8.4 | 5.8 | 3.5 | -49.7 | -26.9 | -19.4 |
| 무역수지 | | 42.0 | 41.2 | 3.1 | 4.0 | 6.2 | 3.9 | 17.3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감소

- 지난 3월에 이어 자동차부품(-5.1%)과 반도체(-1.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55.0%)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무선통신기기(-9.3%)와 영상기기(-36.0%) 등 다른 주요 수출품목 또한 감소세로 전환
  - 반면 자동차(19.1%), 철강판(94.0%)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원동기및펌프는 276.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자동차 현지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21.4% 감소하며 자동차부품 수출이 감소한 반면 완성차 수출은 증가함

● 철광(52.6%), 기호식품(34.7%)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곡실류(-65.8%), 기타농산물(-55.3%), 육류(-20.6%), 식물성물질(-96.0%)의 수입은 감소세 유지

- 특히 곡실류와 식물성물질의 경우 전년동월 각각 1,938.5%와 426.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크게 대조되는 결과

〈4월 對브라질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 수출 | | | 수입 | | |
|---|---|---|---|---|---|---|
|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 | 총계 | 787 | -7.7 | 총계 | 395 | -26.8 |
| 1 | 자동차부품 | 103 | -5.1 | 철광 | 222 | 52.6 |
| 2 | 무선통신기기 | 103 | -9.3 | 기호식품 | 25 | 34.7 |
| 3 | 반도체 | 91 | -1.1 | 동광 | 23 | -29.7 |
| 4 | 자동차 | 51 | 19.1 | 합금철선철및고철 | 20 | 31.2 |
| 5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38 | -55.0 | 곡실류 | 19 | -65.8 |
| 6 | 합성수지 | 29 | 7.5 | 제지원료 | 13 | -23.5 |
| 7 | 철강판 | 28 | 94.0 | 기타농산물 | 12 | -55.3 |
| 8 | 영상기기 | 26 | -36.0 | 육류 | 10 | -20.6 |
| 9 | 레일및철구조물 | 20 | -47.1 | 식물성물질 | 7 | -96.0 |
| 10 | 원동기및펌프 | 19 | 276.2 | 금은및백금 | 7 | - |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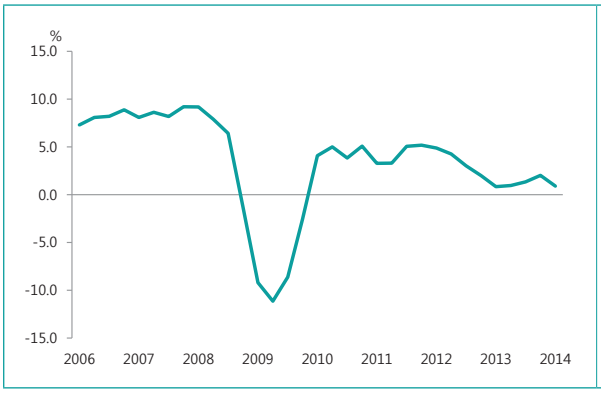
## 1. 경제 동향

### 러시아 4월 실질 GDP 성장률 전년동월 대비 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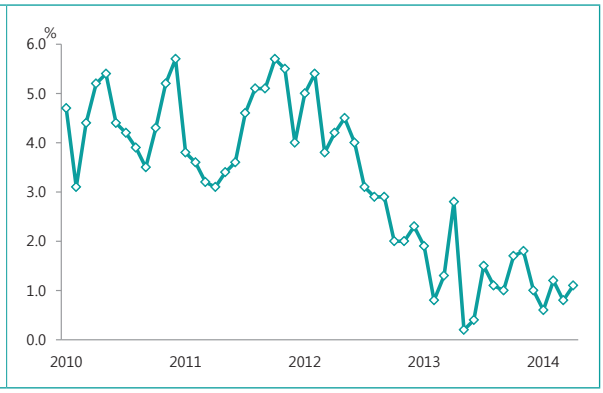
●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2014년 4월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전년동월 대비 1.1% 증가하여 3월 0.8%에 비해 소폭 상승

– 4월까지 누적 증가율 추정치는 1.0%로 3월까지 GDP 성장률 0.9%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GDP 성장률 1.3%에 비해 0.3%p 하락

〈최근 분기별 GDP 성장률〉




〈최근 월별 GDP 성장률〉




자료 : 러시아 경제개발부, CEIC

### 4월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세 지속

● 4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6.0% 증가하면서 3월(4.9%)에 이어 상승폭 확대

– 非CIS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6.4% 증가하면서 수출증가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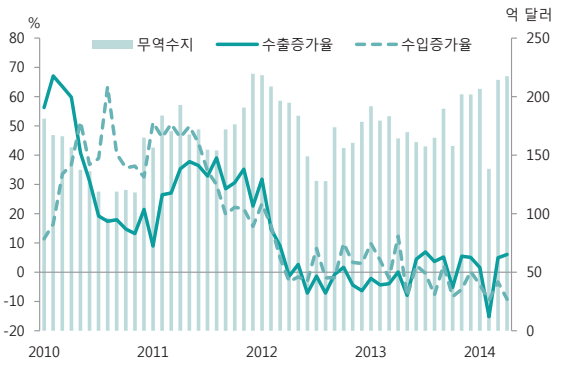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EU의 경제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4월 對EU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하여 3월(0.7%)에 비해 증가폭 확대

●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9.3% 감소. 3월(–3.4%)에 비해 감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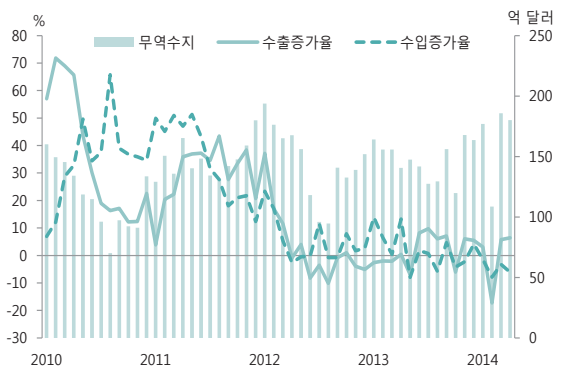
– 非CIS 국가에 대한 수입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

● 3월 무역수지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217.4억 달러 흑자 확대

〈수출입 증가율〉




〈非CIS 수출입 증가율〉




자료 : 러시아연방 관세청, CEIC

## 4월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

● 4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하여 3월 1.4%에 비해 상승

– 전월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2.7%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원유 · 가스채굴업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전력생산은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3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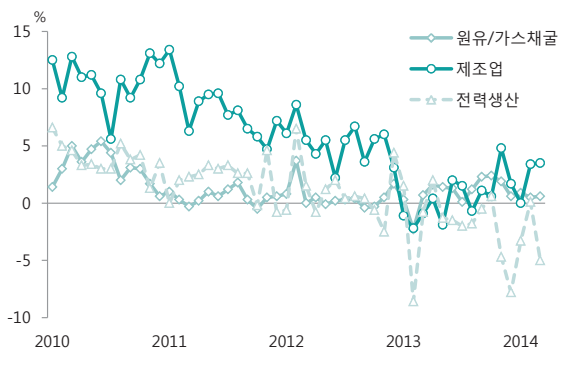
＊4월 제조업과 원유 · 가스채굴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3.9%, 0.9% 증가

– 전력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3월(–5.0%)에 비해 개선

●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 피혁 · 신발, 석유제품, 운송장비 등의 생산이 증가한 반면, 화학제품, 기계장비, 전자 · 광학 등의 생산은 감소

〈산업생산 증가율〉

〈업종별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 러시아 연방 통계청

## 4월 고정자산투자 전년동월 대비 2.7% 감소

- 4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 대비 2.7% 감소하였으나 3월(-4.3%)에 비해 개선
  -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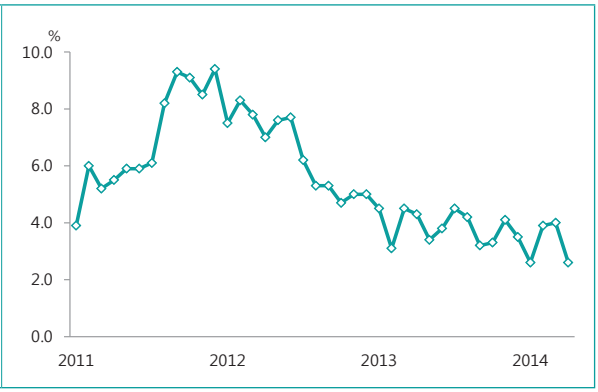
- 1~4월 누적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면서 상승 전환

##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소폭 둔화

- 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2.6% 증가하여 3월(4.0%)에 비해 소폭 둔화
  - 식품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2% 증가한 반면, 비식품판매는 3월 6.9% 증가에서 3.7%로 둔화되면서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를 견인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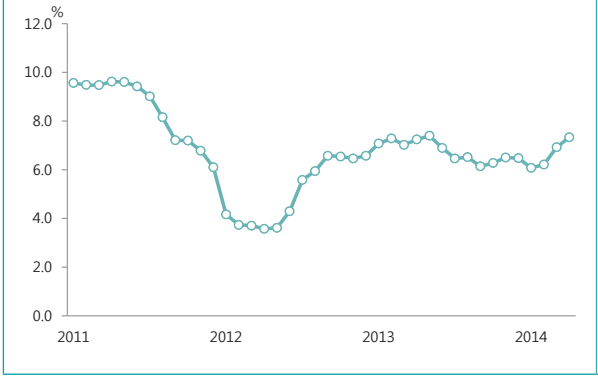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CEIC

## 4월 소비자물가는 7.3% 상승하며 인플레 압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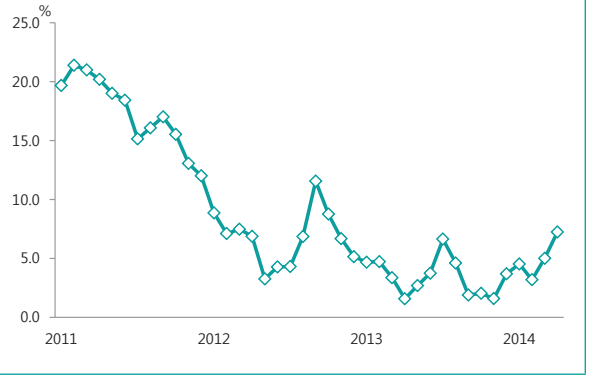
-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7.3%, 전월 대비 0.9% 상승
  -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0.4%p 증가하며 인플레 압력을 확대
  -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영향과 돼지고기 가격 인상으로 식품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9.0%로 크게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

- 4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7.2%, 전월 대비 0.7% 상승
  - 광업, 제조업, 전력 생산자물가가 모두 상승하면서 전체 생산자물가를 견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자료 : CEIC

## 4월 실질임금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실질가처분소득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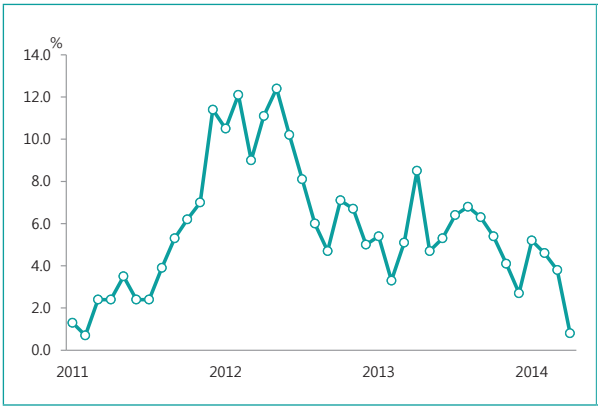
- 4월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0.8%에 그쳐 3월(3.8%)에 비해 3.0%p 하락
  – 1~4월 누적 실질임금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

- 실질임금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질가처분 소득은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
  – 그러나 1~4월 실질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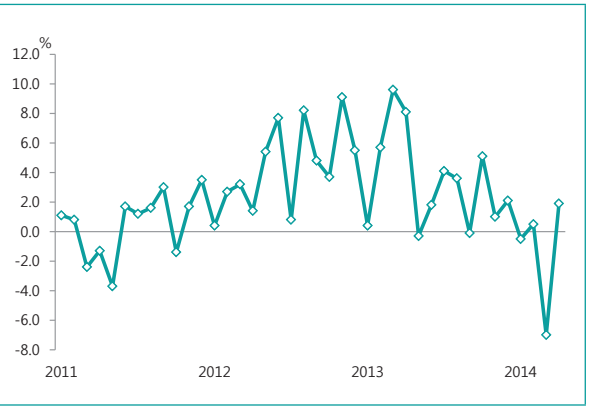
## 4월 실업률은 소폭 하락

- 4월 실업률은 5.3%로 3월 5.4% 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제외할 경우 5.2% 기록

〈실질임금 증가율〉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자료 : CEIC

# 2. 시장 정보 및 이슈

## 러시아 정부, 항공 산업에 280억 달러(약 28조 원) 투입할 전망

● 5월 9일 발표된 산업지원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3위의 항공기 제조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2025년 까지 항공 산업에 28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

– 이 계획에 따르면, 280억 달러 중 205억 달러(약 20조 원)는 정부에서 투자하고, 79억 달러(약 8조 원)은 민간분야에서 투자받을 예정

● 동 계획은 2025년 까지 러시아의 여객기 생산 시장 점유율을 2011년 0.6%에서 2025년 3.3%로 상승, 민간 헬리콥터는 현재 6%에서 12%까지 상승, 항공기 엔진은 현재 0.4%에서 1.4%로 상승, 군용항공기 엔진은 현재 6.7%에서 13%로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여객기 분야 세계 3대 제조사는 프랑스의 Airbus社, 미국의 Boeing社, 캐나다의 Bombardier社이며, 군용기 분야는 미국의 Lockheed Martin社, Northrop Grumman社, Boeing社과 EADS社가 있음

## Norilsk Nickel社, 구리(copper)프로젝트를 위해 10억 달러 자금조달 협상 중

● 세계 최대의 니켈 및 팔라듐 생산자인 Norilsk Nickel社는 구리 프로젝트를 위해 러시아의 은행들과 10억 달러 자금조달을 협상 중

– Norilsk社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Bystrinskoye 구리 매장층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

– 2017년 3분기에 Bystrinskoye지역의 동정광(copper concentrate)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며, 2018년 최대 생산량인 동정광 66,000톤과 금정광 210,000톤에 도달하면 연간 매출은 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Norilsk社 관계자는 2016년까지 Norilsk 지역의 노후화된 니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힘

– 또한 핀란드에 있는 Harjavalta 니켈 정련 공장에서 사용되는 반제품은 3자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자사의 것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러시아, 저가항공사에 처음으로 운항권 부여

- 러시아 항공부는 러시아 저가항공사인 Dobrolyot社에 첫 운항권을 부여
  - 러시아의 대표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의 자회사인 Dobrolyot社는 2015년에 운항지역을 19개 도시로, 2016년에는 26개 도시로 확대하고, 키예프, 예레반, 이스탄불로의 국제선도 운영할 계획
  - 첫 운항은 올 6월 예정이며,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라스노다르, 예카테린부르크, 사마라, 마하치칼라, 우파, 칼리닌그라드, 노비우렌고이 등 총 8개 도시로 취항할 예정

## 러시아-중국, 410조 원 규모 가스딜 타결

- 5월 21일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은 10년 넘게 끌어온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
  - 이번 계약에 따라 러시아는 '동부 노선' 가스관을 건설해 2018년부터 30년간 중국에 연간 380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됨
    * 이는 가스프롬 수출량의 16%, 중국 전체 가스 소비량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가스 가격은 공개하지 않음
  -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외교적 · 경제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대기오염 문제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도 혜택이 예상됨

## 러시아 안드로이드 개발 서비스업체 1위는 iTrack社

- Best Web Design Agencies社는 러시아의 안드로이드 개발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평가,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하여 발표함
  - 평가는 디자인, 속도, 개발 품질, 버그 테스팅, 고객 지원 5개 분야에서 이루어짐
    * Best Web Design Agencies은 웹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평가하고 고객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러시아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러시아 Top 5 안드로이드 개발 서비스업체〉

| 순위 | 회사명 | 설립년도 | 주요고객사 | 매출액 |
|---|---|---|---|---|
| 1위 | iTrack | 2004 | Delta, Electronics, ZOOLER.RU, Ruslan Kommuikeyshnz, Bank “Glory” | 1백만 달러 이상 3백만 달러 미만 |
| 2위 | Azoft | 2002 | VympelCom(Beeline), IntralSP, Clearwire, Western Union | 1백만 달러 이상 3백만 달러 미만 |
| 3위 | Mobiwolf | 2010 | United Taxi, GeneDroid, TappedIn, NomaSugar | 3백만 달러 이상 5백만 달러 미만 |
| 4위 | Vita-Mobile | 2008 | HexMagic, Software Inc., FanAmp Sports, IdiogenicOlsmoles, Toneaphone | 3백만 달러 이상 5백만 달러 미만 |
| 5위 | Murano Software Russia | 2007 | Sysdome, Inc. Realty Tech, Nsite, Microsoft | 25만 달러 미만 |

자료 : http://bestwebdesignagencies.com



## 크림반도에 러시아판 ‘라스베가스’ 건설 계획

- 러 정부는 크림 자치공화국 발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16년 말까지 크림반도에 카지노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
  - 카지노 클러스터 건설 프로젝트 1단계에 투입될 총 투자액은 15억 달러로 추산되며, 그 중 국가 예산은 필수 인프라 구축에만 할당될 예정

- 카지노 클러스터 조성은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호텔과 카지노 건설을 위한 활발한 해외 투자자 유치 활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위치는 미정인 상태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창설

- 5월 29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 창설 조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 1일 공식 출범키로 함
  - 3국은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국은 에너지, 공업, 농업, 운송 등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통일된 정책을 실시할 계획
  - 2025년경 3국 통합 금융 규제기관이 신설되며, 단일화된 거시경제정책, 반독점정책, 외환정책 및 금융정책을 실시해야 함
  - 또한 2016년 1월 1일경에는 통합 의약품 시장, 2019년경 통합 전력시장, 2025년경 석유 및 가스 통합시장을 조성할 계획

## 러시아, 크림반도에 SEZ(특별경제구역) 지정 계획

- 3월 24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크림 반도를 방문해 6월까지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를 SEZ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힘
  - 5월 25일 공개된 경제개발부 제안에 따르면, 크림반도의 SEZ는 역외 지역으로도 활용할 것이며, 크림 및 세바스토폴 투자자를 거주 투자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자 그룹으로 구분할 계획
  - 거주 투자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자는 3년간 크림과 세바스토폴에 투자한 1억 5천만 루블에 대해 모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만 10% 부과될 예정
  - 하지만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금이 SEZ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누어서 투입되므로 투자자금이 아닌 등록비로 간주

    * 포트폴리오 투자자는 역외에 있는 자본을 러시아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상으로 세금이 면제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시설 현대화 등 투자확대 기대

## SEZ(특별경제구역)관리, 지방정부로 권한 위임

- 5월 25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러시아의 SEZ 관리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함
  - 연방정부가 SEZ에 직접 예산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각 지역별 SEZ 개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

    * 새로운 SEZ 개발 허가 권한은 여전히 연방정부에게 있음
  - 지방정부는 지역 SEZ의 투자유치목표(투자자 수, 첨단기술관련 일자리 창출 수 등)를 설정하여 연방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목표 미달성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SEZ(Special Economic Zone): 투자자에게 세제혜택, 관세혜택, 등록절차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구역으로, 2005년 러 경제개발부가 도입, 현재까지 러시아 전역에 17개 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18번째 SEZ가 될 예정

## 불가리아, 러시아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프로젝트 잠정 중단

- 6월 9일 불가리아 플레만 오레샤르스키 총리는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 공사 중단을 지시

  * 사우스 스트림은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가스프롬(Gazprom)의 가스관 프로젝트로, 러시아 천연가스를 흑해를 경유하여 불가리아를 포함한 서방 유럽으로 공급할 예정

– 불가리아는 러시아가 EU의 권고와 제반 규정을 충족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할 시 공사를 재개할 예정

* EU 에너지규정에 따르면 가스프롬은 파이프라인의 50% 운영권을 가지고 나머지 50%는 제 3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반면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체 소유권을 요구하며 이 조항을 거부 중

## 가스프롬(Gazprom),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사업 강행 계획 발표

- 사우스 스트림에 대한 서방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2015년 12월 가스관의 첫 가동을 단언
  – 가스프롬은 국제적 재정 조달 없이도 사우스 스트림 프로젝트를 완료할 역량이 있으며 노르드 스트림(Nord Stream)과 사할린-2(Sakhalin-2) 프로젝트와 유사한 자금조달 방식을 계획 중
  – 이는 EU가 에너지 안보 문제로 불가리아의 파이프라인 공사 중단을 권고한 날에 공식적으로 밝힌 의견

* 불가리아 사우스 스트림 건설은 2014년 6월에 착공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EU가 이를 재고함에 따라 중단됨

# 3. 한·러 수출입 동향

## 4월 對러시아 수출 감소세 지속하나 큰 폭 개선

- 4월 對러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0.1% 감소한 9.3억 달러
  - 4월까지 누적 수출증가율은 -7.2%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4월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34.3% 증가한 12.7억 달러

- 수출의 개선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3월 6.3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적자폭 축소

〈최근 對러시아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 구 분 | | 2013 | 2013.11 | 2013.12 | 2014.1 | 2014.2 | 2014.3 | 2014.4 | 2014.1~4 |
|---|---|---|---|---|---|---|---|---|---|
| 수출 | 금액 | 111.5 | 8.9 | 8.9 | 8.3 | 8.3 | 8.5 | 9.3 | 34.4 |
| | 증가율 | 0.5 | -9.6 | 22.2 | -9.9 | -9.6 | -9.2 | -0.1 | -7.2 |
| 수입 | 금액 | 115.0 | 11.3 | 11.3 | 12.5 | 11.4 | 14.9 | 12.7 | 51.5 |
| | 증가율 | 1.2 | -1.4 | 34.0 | 19.3 | 55.3 | 55.2 | 34.3 | 39.7 |
| 무역수지 | | -3.5 | -2.4 | -2.4 | -4.2 | -3.1 | -6.3 | -3.4 | -17.0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 영상기기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4월 자동차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2.7% 증가에 그친 반면 자동차부품 수출은 5.9% 증가하면서 상승세로 전환
  - 올해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3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무선통신기기 수출 증가율: 244.6%(1월) → 34.6%(2월) → -32.8%(3월) → -49.9%(4월)

- 수입의 경우 곡실류, 식물성물질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석탄 수입도 전년동월 대비 23.5% 증가하면서 상승 전환
  - 원유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27.1% 증가하면서 최대 수입품목으로 부상

〈4월 對러시아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 순위 | 수출 | | | 수입 | | |
|---|---|---|---|---|---|---|
|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 | 총계 | 932 | -0.1 | 총계 | 1274 | 34.3 |
| 1 | 자동차 | 317 | 2.7 | 원유 | 439 | 27.1 |
| 2 | 자동차부품 | 130 | 5.9 | 석유제품 | 300 | 169.0 |
| 3 | 합성수지 | 39 | -18.9 | 석탄 | 170 | 23.5 |
| 4 | 영상기기 | 36 | 26.2 | 천연가스 | 67 | 57.4 |
| 5 | 건설광산기계 | 33 | -45.6 | 합금철선철및고철 | 62 | -0.5 |
| 6 |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 32 | 25.8 | 알루미늄 | 44 | -11.7 |
| 7 | 고무제품 | 32 | -0.2 | 어류 | 39 | 16.1 |
| 8 | 플라스틱 제품 | 19 | 3.6 | 식물성물질 | 24 | 1792.7 |
| 9 | 철강판 | 18 | -6.0 | 곡실류 | 15 | 2796.3 |
| 10 | 운반하역기계 | 18 | 5.0 | 금은및백금 | 15 | - |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인도

## 1. 경제 동향

### 인도 2013-14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4.7%

-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2013-14 회계연도 성장률은 4.7%로 2년 연속 5% 미만 기록, 전년(4.5%)보다는 나아졌으나 2월 7일 발표된 추정치(4.9%)에 비해 낮아짐
  - 중앙은행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이 2004-5~2009-10년간 평균 10%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3-14 회계연도에는 5.7%를 기록하는 데 그침
  - 광업(-1.4%)과 제조업(-0.7%) 부문의 연간성장률이 가장 부진하였으며, 무역, 숙박, 운송, 통신 부문도 3.0%로 전년(5.1%)대비 하락
  - 반면 금융 · 부동산 · 사업서비스는 12.9%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 2013-14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인 1~3월간 분기 성장률도 4.6%에 불과
  -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투자 부족과 루피화 변동성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모디 총리가 이끄는 신정부에서는 보다 나아질 전망

〈최근 인도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주요 업종별 경제성장률(%)〉

| 구분 | 2012-13 | | | | 2013-14 | | | |
|---|---|---|---|---|---|---|---|---|
|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총 GDP 성장률 | 4.5 | 4.6 | 4.4 | 4.4 | 4.7 | 5.2 | 4.6 | 4.6 |
| 농림수산업 | 1.8 | 1.8 | 0.8 | 1.6 | 4.0 | 5.0 | 3.7 | 6.3 |
| 광업 | -1.1 | -0.1 | -2.0 | -4.8 | -3.9 | -0.0 | -1.2 | -0.4 |
| 제조업 | -1.1 | 0.0 | 2.5 | 3.0 | -1.2 | 1.3 | -1.5 | -1.4 |
| 전력 · 가스 · 수리 | 4.2 | 1.3 | 2.6 | 0.9 | 3.8 | 7.8 | 5.0 | 7.2 |
| 건설 | 2.8 | -1.9 | 1.0 | 2.4 | 1.1 | 4.4 | 0.6 | 0.7 |
| 유통 · 여행 · 통신 | 4.0 | 5.6 | 5.9 | 4.8 | 1.6 | 3.6 | 2.9 | 3.9 |
| 사업서비스 | 11.7 | 10.6 | 10.2 | 11.2 | 12.9 | 12.1 | 14.1 | 12.4 |
| 사회 · 개인서비스 | 7.6 | 7.4 | 4.0 | 2.8 | 10.6 | 3.6 | 5.7 |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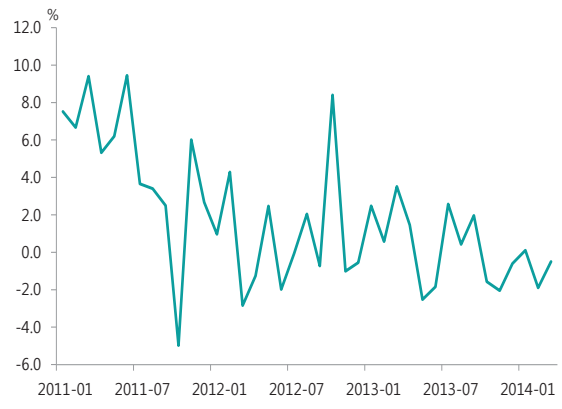
자료 : 인도 통계청

## 3월 산업생산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

- 전년동월(3.5%) 대비 하락했으나 전월(−1.9%)대비 소폭 상승
  - 전력(5.4%), 원자재(4.0%), 비내구소비재(7.2%) 등이 상승한 반면 자본재(−12.5%)를 비롯해 내구소비재(−11.8%), 제조업(−1.2%) 등은 감소

- 산업생산의 37.9%를 차지하는 8개 핵심 산업(석탄,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비료, 철강, 시멘트, 전력)은 3월 중 2.5% 증가
  - 철강(5.4%), 전력(5.4%), 정유(2.8%) 등이 증가한 반면 천연가스(−9.3%), 비료(−6.1%), 원유(−1.6%) 등은 감소

〈최근 인도의 산업생산증가율 추이〉




〈유형별 산업생산 증가율〉

(단위: %)

| 업종/성질별 | 1월 | 2월 | 3월 |
|---|---|---|---|
| 전산업 | 0.1 | −1.9 | −0.5 |
| 광업 | 0.7 | 1.4 | −0.4 |
| 제조업 | −0.7 | −3.7 | −1.2 |
| 전력 | 6.5 | 11.5 | 5.4 |
| 원자재 | 0.9 | 3.9 | 4.0 |
| 자본재 | −4.2 | −17.4 | −12.5 |
| 중간재 | 3.4 | 4.2 | 0.6 |
| 소비재 | −0.6 | −4.5 | −0.9 |
| − 내구재 | −8.3 | −9.3 | −11.8 |
| − 비내구재 | 4.4 | −1.2 | 7.2 |

자료: CEIC, 인도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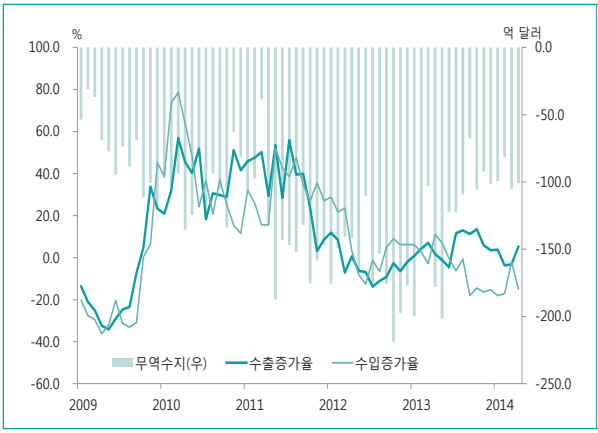
## 4월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

- 4월 수출은 5.3% 증가한 256.3억 달러를 기록
  - 기계류, 수산물, 가죽제품 등의 품목이 증가하면서 수출증가율은 최근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

- 4월 수입은 357.2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5.0% 감소
  -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은 129.8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금을 비롯한 원유를 제외한 수입은 227.4억 달러로 21.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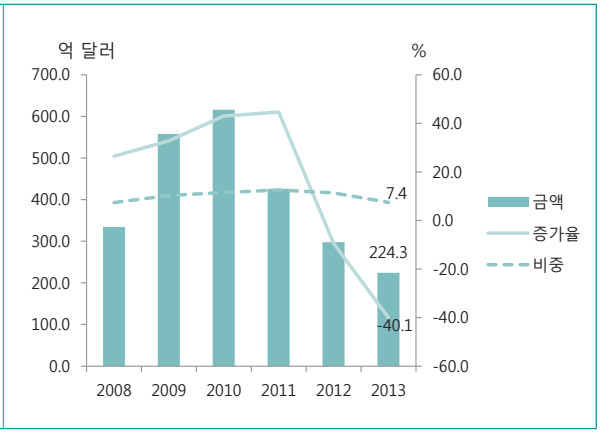
- 무역수지 적자는 100.9억 달러로 전년동월(176.7억 달러) 대비 42.9% 감소
  - 4월 중 금 수입액은 전년동월 대비 71.3% 감소하였으며 연간 수입액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자료: CEIC 인도중앙은행

〈연도별 금은 수입액 및 증가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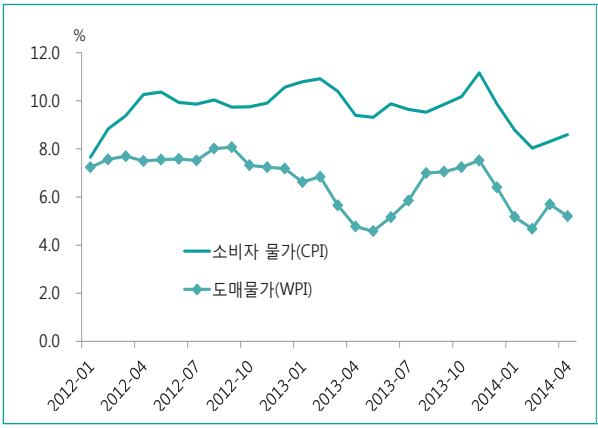



자료: 인도상무부

## 4월 도매물가상승률은 5.2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59% 기록

- 도매물가상승률은 전월(5.70%) 대비 다소 감소한 5.20%를 기록
  - 연료 및 전력(8.93%), 식료품(8.64%), 공산품(3.15%) 등 전월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히 채소가격 급락(8.6%→1.3%)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도매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주요품목별 도매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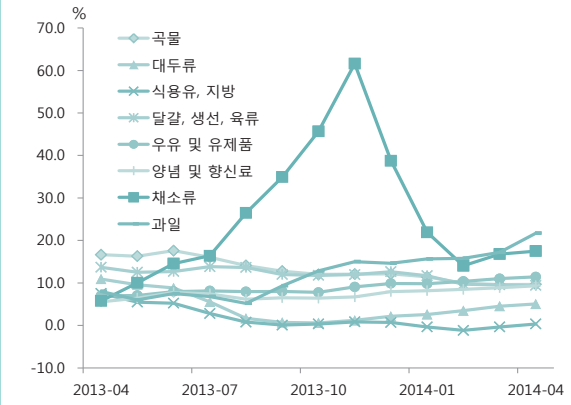
(단위: %)

| | 비중 | 2월 | 3월 | 4월 |
|---|---|---|---|---|
| 전 품목 | 100.00 | 4.68 | 5.70 | 5.20 |
| 1차 산품 | 20.12 | 6.33 | 7.66 | 7.06 |
| 식료품 | 14.34 | 8.12 | 9.90 | 8.64 |
| 연료 및 전력 | 14.91 | 8.75 | 11.22 | 8.93 |
| 공산품 | 64.97 | 2.76 | 3.23 | 3.15 |

자료: 인도중앙은행, 인도 재무부

-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월(8.31%) 대비 소폭 상승한 8.59% 기록
  - 과일(21.7%) 및 채소(17.5%) 등을 비롯한 식품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물가상승의 주원인이며,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몬순 기간 내 평균 이하의 강수량이 예측되고 있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 선택은 쉽지 않을 전망

〈주요 식료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주요 품목별 소비자 물가상승률〉

(단위: %)

| 품 목 | 2월 | 3월 | 4월 |
|---|---|---|---|
| 전 체 | 8.03 | 8.31 | 8.59 |
| 식품, 음료, 담배 | 8.63 | 8.63 | 9.79 |
| 연료 및 전기 | 6.13 | 6.29 | 5.96 |
| 주거 | 9.88 | 9.89 | 9.73 |
| 의류, 침구류, 신발류 | 9.22 | 9.03 | 8.83 |
| 기타 | 6.89 | 6.78 | 7.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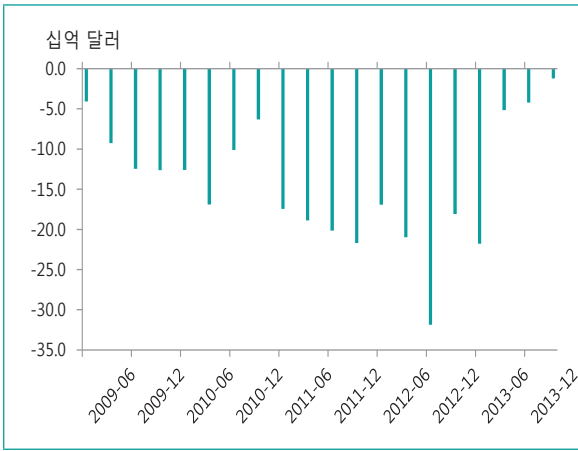
자료 : 인도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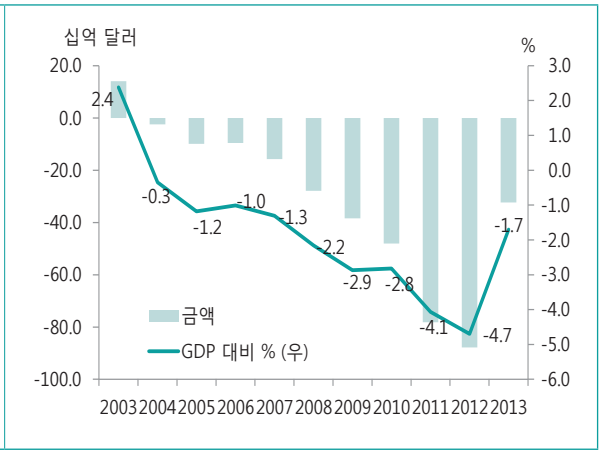
## 인도 2014년 1분기 경상수지 적자 12억 달러로 4년 만에 최저치

- 2013-14 회계연도의 4분기(1월~3월) 적자는 12억 달러로 전분기 42억 달러와 전년동기 181억 달러 대비 대폭 감소
  - 2013-14 회계연도 연간 경상수지 적자는 324억 달러로 전년 878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어 GDP 대비 1.7% 기록
  - 금 수입 규제 강화로 금을 비롯한 총 수입은 연간 8.1% 감소한 반면 수출은 4.0%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1,386억 달러로 3년래 최저치 기록

〈분기별 경상수지 적자 추이〉




〈연간 경상수지 적자 및 GDP대비 비중〉




자료 : 인도중앙은행

# 2. 시장 정보 및 이슈

## 쇼핑몰 개발,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회귀할 전망

- 대도시의 소매점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소도시의 도심지역으로 진출했던 쇼핑몰 개발자들이 소도시민들의 자국 브랜드 인지 부족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다시 대도시 쇼핑몰 개발에 중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인도의 부동산개발컨설팅사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2년간 많은 쇼핑몰이 1선 도시(Tier 1)들에 집중되어 개발될 전망
  - 앞으로 새롭게 개발될 쇼핑몰은 52%가 1선 도시에, 15%는 2선 도시(Tier 2)에, 33%는 3선 도시(Tier 3)에 들어설 것으로 보임

  * 1선에 속하는 도시는 총 7개로 Delhi, Mumbai, Bangalore, Kolkata, Pune, Chennai, Hyderabad 가 있으며, 2선(Tier 2)는 인구 백만 이상인 도시, 나머지 다른 도시들은 3선으로 분류

## Flipkart社, 온라인 패션 소매업체 Myntra社 인수

-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Flipkart社는 온라인 패션 소매업체 Myntra社을 인도 전자상거래 거래 사상 최대금액인 3억 달러에 인수
  - 인도 온라인 소매시장은 2018년까지 7배 이상 증가한 2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Flipkart社는 이번 거래를 통해 거대 인도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할 전망
  - 한편 Myntra社는 2007년 설립되어 현재 60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171억 루피(2억 9,100만 달러)인도 의류 및 신발 소매시장에서 41%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 중

  * Flipkart社는 2012년에 의류 파트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시장점유율은 12%임

## 인도 정부, 배전망사업과 전기소매사업 분리 및 민영화 추진 계획 발표

- 인도 전력부 장관은 국영 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배전망 사업과 전기소매사업을 분리시키고, 전기소매사업은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12년 3월 기준 적자는 2조 1,600억 루피(360억 달러)이며 현재 전기 공급량의 27%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누전 등으로 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분리작업은 시행까지 5년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전력요금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몇몇 주정부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델리를 포함한 최소 4개의 주가 표를 얻기 위해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

  – 그러나 현 시스템이 주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이라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인도중앙은행(RBI), 금 수입 규제 완화

- 인도중앙은행은 그동안 허가 받은 국유 기업이나 무역 회사로 한정하던 금 수입 자격을 대폭 완화함
  – 월간 수입량은 10톤에서 15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공급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금 수입에는 10%의 수입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수입한 금의 20%는 수출하는 보석상에 공급해야 함

## 신정부, 방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FDI) 100%까지 허용 결정

- 5월 26일 출범한 모디 정부는 출범 이틀 만에 방산 물자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허용치를 현행 26%에서 최대 100%까지 허용하기로 결정
  – 상공부의 단계별 외국인 투자 한도 차별화 제안에 따라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회사는 49%,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는 74%, 최첨단 장비 및 기계를 제조하거나 현대화 프로젝트에 가담한 기업은 100%까지 FDI를 허용
  – 외국인 투자 한도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기관투자자(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및 비거주 인도인에 의한 투자에 모두 해당됨

## 인도 정부, 미국 · 중국 · 대만 · 말레이시아 산 태양 전지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 인도 반덤핑총국은 자국 내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미국,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태양 전지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와트 당 11~81 센트 사이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 될 예정
  – 해당 국가로부터 태양 전지 및 전지판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5~110% 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인도는 현재 1,700MW인 태양광발전능력을 2022년까지 20,000MW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작년 인도의 태양광 관련 상품 수입은 약 600억 루피(1,030억 달러)로 추산되는 반면, 자국 내 제조업체들의 공급분은 총 태양광 산업의 2% 이하

## 인도중앙은행(RBI), 선물환계약 한도 늘리기로 결정

● 인도중앙은행은 5월 28일 수입상의 환리스크 헤지 융통성 강화를 위한 선물환계약의 한도를 완화한다고 발표

– 선물환계약의 한도는 기존에 3년간 평균 수입액 또는 전년도 실질 수입액의 25%로 제한하던 것을 5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 또한, 현 회계연도에 이미 기존 한도인 25%에 달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수입상에 대해서는 25%의 추가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 신임 재무부 장관, GST 금년 내 시행 예정

● 신정부의 재무부 장관인 Arun Jaitley가 GST(Goods and Service Tax, 상품 · 서비스세)시행을 최우선 순위과제로 두고 금년 내로 시행할 예정

–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시행방법 불일치에 대해 논의하고, 주정부 재무부 장관들과의 회의를 진행 중

– 정권 교체에 따라 반대파가 줄어들어 빠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GST는 12억 인도 국민의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며,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시행 목적임

– Godrej 그룹의 회장에 따르면, GST 시행으로 인도의 GDP는 2% 포인트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인도 전력 부족 5월 중 두 배 이상 증가

● 5월 인도 내 전력 부족이 두 배 이상 증가(3,000MW→7,000MW)했고, 지난 며칠간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장전력요금(spot power price)이 두 배 상승(단위당 2루피→4루피)

– 몬순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전 지역에서 정전 현상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

● 중앙전력청(CEA)에 따르면 32개 화력발전소는 7일을 운영하기도 부족한 양의 석탄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9개의 발전소는 4일도 버티기 힘든 상황

## 인도 29번째 주, 테란가나 주 탄생

● 6월 2일 인도 남부의 안드라 프라데쉬 주에서 테란가나 주가 분리해 독립 주로 탄생하였으며, 찬드라세카르 라오가 새 주의 수석 장관으로 취임

- 라오는 14년간 테란가나 주 분리를 주장했으며, 분리주의자들은 가뭄이 잦은 북부 지역은 저개발 지역으로 남아 재정 및 수자원과 일자리 배분에서 홀대를 받았다고 주장
- 테란가나 주는 안드라 프라데쉬 주의 10개 구역을 포함하며 인구는 3,500만 명에 달함
- 테란가나 주 수도는 안드라 프라데쉬 주의 수도인 하이데라바드로 2개 주가 10년간 공동수도로 쓸 예정이며 그 사이 안드라 프라데쉬 주에서는 다른 수도를 개발할 예정

## 2014-15 회계연도 GDP 성장률, 몬순의 영향으로 기대와 달리 완만할 예상

● 인도 씨티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총선 결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몬순의 영향으로 평균 이하의 농업 성장률을 기록할 것을 고려하면 2014-2015 회계연도의 GDP 성장률은 5.6%가 될 것으로 전망

- 도이치뱅크 역시 몬순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실질 GDP성장률을 5.5%로 예상

# 3. 한·인도 수출입 동향

## 4월중 對인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대폭 감소

- 對인도 수출은 11.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3% 증가
- 수입은 4.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9.3% 감소
- 무역수지는 6.8억 달러로 월별 사상 최대 흑자 기록

〈최근 對인도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

| | 2012 | 2013 | 2013.11 | 2013.12 | 2014.1 | 2014.2 | 2014.3 | 2014.4 | 2014.1~4 |
|---|---|---|---|---|---|---|---|---|---|
| 수출액 | 119.2 | 113.8 | 8.7 | 9.4 | 9.4 | 10.1 | 11.1 | 11.0 | 41.6 |
| 수출증가율 | -5.8 | -4.6 | -13.0 | 9.5 | 1.8 | 1.3 | 9.2 | 15.3 | 7.0 |
| 수입액 | 69.2 | 61.8 | 4.7 | 4.4 | 4.5 | 5.1 | 5.4 | 4.3 | 19.2 |
| 수입증가율 | -12.3 | -10.7 | -22.0 | -25.2 | -33.4 | -14.9 | 23.9 | -19.3 | -14.1 |
| 무역수지 | 50.0 | 52.0 | 4.0 | 4.9 | 4.8 | 5.0 | 5.8 | 6.8 | 22.4 |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철강판(60.2%), 무선통신기기(493.4%), 석유화학합섬원료(127.8%)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
  - 10대 수출 품목이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2위 품목인 자동차부품(-20.8%)은 전월에 이어 감소세 지속

- 수입은 최대품목인 석유제품(-48.5%), 알루미늄(-10.3%), 식물성물질(-60.1%) 등 주요 품목들이 대부분 감소세를 보임
  -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148,402.90%), 곡실류(109.6%), 합금철선철및고철(26.4%) 등은 증가

### 〈4월 對인도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 수출 | | | 수입 | | |
|---|---|---|---|---|---|---|
|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 | 총계 | 1,101 | 15.3 | 총계 | 426 | -19.3 |
| 1 | 철강판 | 128 | 60.2 | 석유제품 | 85 | -48.5 |
| 2 | 자동차부품 | 100 | -20.8 | 합금철선철및고철 | 49 | 26.4 |
| 3 | 합성수지 | 97 | 15.5 | 알루미늄 | 34 | -10.3 |
| 4 | 무선통신기기 | 86 | 493.4 | 식물성물질 | 33 | -60.1 |
| 5 | 석유화학합섬원료 | 61 | 127.8 |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 19 | 148,402.90 |
| 6 | 석유제품 | 60 | 12.2 | 정밀화학원료 | 18 | 3.4 |
| 7 | 기타석유화학제품 | 60 | 85.3 | 천연섬유사 | 14 | -37.5 |
| 8 | 합성고무 | 37 | 4.9 | 곡실류 | 12 | 109.6 |
| 9 | 금은및백금 | 36 | 19.8 | 연제품 | 11 | -2.5 |
| 10 | 반도체 | 29 | 83.0 | 기초유분 | 11 | -34.2 |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중국

## 1.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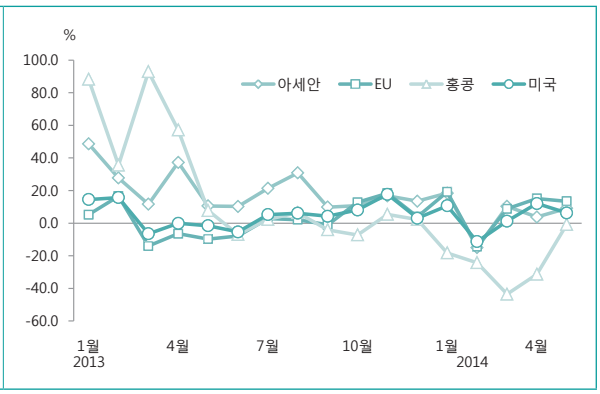
### 5월 수출 시장전망치 상회하며 정상화

- 5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7.0%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6.7%와 4월의 0.9%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정상화
  - 핫머니 규제 강화로 핫머니 유입경로로 활용된 대홍콩 수출 감소세가 진정되었으며 미국, EU 등 선진국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
    * 올해 5월 對홍콩 수출증가율은 -0.8%로 4월(-31.4%)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
  - 미국, EU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대아세안 수출이 4월 3.8%에서 5월 9.1%로 증가
  - 홍콩으로의 수출을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8.4% 증가하면서 4월 9.4%에 비해 소폭 둔화

- 품목별로는 의류, 신발 등 전통적 수출품목이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기계 및 전기전자, 전자회로의 수출은 감소폭이 큰 폭으로 개선
  - 특히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첨단산업 제품은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

〈수출입 증가율〉

〈주요국(권역)별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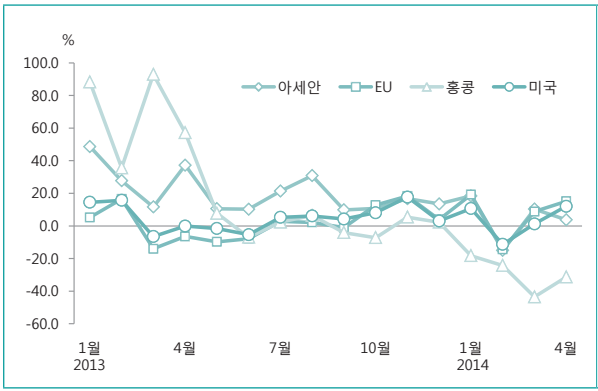



자료: 해관총서, CEIC

## 4월 소매판매 증가율 소폭 둔화

- 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1.9% 증가하면서 3월 12.2%에 비해 소폭 둔화
  - 외식(5.3%), 건자재(16.7%), 통신기기(28.8%) 등의 소매판매가 증가한 반면, 자동차(12.3%)는 소폭 둔화
    * 특히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던 외식이 전년동월 대비 5.3% 증가하면서 회복된 반면 귀금속 판매는 30% 감소
  - 4월 가전제품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에 그치면서 2012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기록
  - 지역별로는 농촌지역 소매판매는 증가한 반면 도시지역 소매판매는 둔화 지속
    * 4월 농촌지역 소매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3.2%로 3월 12.9%에 비해 소폭 증가

〈소매판매 증가율〉




〈주요 업종별 소매판매 증가율〉

자료 : 중국통계국, CEIC

## 4월까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둔화세 지속

- 4월까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7.3%으로 둔화세 지속
  -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모두 소폭 둔화
  -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철강/압연/제련에 대한 투자가 둔화되거나 감소한 반면, 일반장비, 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는 증가
    * 특히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5.5% 증가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 부동산투자 둔화가 고정자산투자 둔화에 중요한 원인
  - 중국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부동산투자 둔화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

〈최근 업종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변화〉

(단위 : %)

| | 비중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2월 | 3월 | 4월 |
|---|---|---|---|---|---|---|---|---|
| 전체 | 100.0 | 20.2 | 20.1 | 19.9 | 19.6 | 17.9 | 17.6 | 17.3 |
| 2차산업 | 41.4 | 17.1 | 17.6 | 17.3 | 17.4 | 13.7 | 14.7 | 14.5 |
| 제조업 | 34.5 | 18.5 | 19.1 | 18.6 | 18.5 | 15.1 | 15.2 | 15.2 |
| 비금속광물 | 3.0 | 14.6 | 14.5 | 14.4 | 14.8 | 11.4 | 15.4 | 14.6 |
| 일반장비 | 2.6 | 22.4 | 24.5 | 23.1 | 23.5 | 14.6 | 17.8 | 18.7 |
| 자동차 | 2.3 | 15.4 | 15.6 | 15.0 | 15.0 | 20.7 | 13.1 | 11.3 |
| 통신장비 | 1.9 | 21.7 | 21.6 | 22.0 | 20.2 | 17.5 | 13.3 | 15.1 |
| 철강/제련/압연 | 1.0 | 2.6 | 3.1 | 2.2 | -2.1 | 0.1 | -7.5 | -6.7 |
| 전력/가스/수리 | 4.1 | 17.0 | 17.2 | 17.7 | 18.4 | 5.5 | 15.1 | 14.1 |
| 3차산업 | 56.9 | 22.3 | 21.6 | 21.5 | 21.0 | 20.8 | 19.6 | 19.2 |
| 도로 | 4.8 | 23.8 | 22.0 | 22.6 | 18.5 | 24.5 | 23.0 | 23.9 |
| 철도 | 1.0 | 10.2 | 4.2 | 2.4 | 6.3 | 16.8 | 15.9 | 8.6 |
| IT | 0.7 | 16.7 | 17.4 | 17.0 | 19.5 | 22.4 | 41.7 | 37.4 |
| 환경 | 8.0 | 29.3 | 28.5 | 28.5 | 26.9 | 24.1 | 24.6 | 25.5 |
| 부동산 | 28.1 | 21.0 | 20.5 | 20.2 | 20.3 | 19.1 | 16.3 | 15.4 |

자료 : 중국통계국, CEIC

## 4월 산업생산 소폭 둔화하면서 8%대 증가율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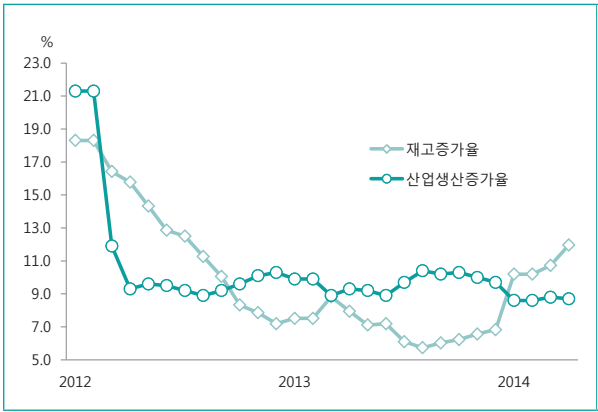
- 4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8.7%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 8.9%와 3월 8.8%에 비해 소폭 둔화

  * 최근 산업생산 증가율 : 10.0%(11월) → 9.7%(12월) → 8.6%(1~2월) → 8.8%(3월) → 8.7%(4월)

- 과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출 둔화로 인한 투자 및 재고 증가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세가 지속
  - 광업, 섬유, 가구,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증가한 반면 일반장비, 컴퓨터 · 통신 장비 등의 생산은 둔화
  - 특히 전력생산 증가율이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에 그치면서 큰 폭으로 둔화

    * 전력생산 증가율 : 12.2%(8월) → 5.2%(12월) → 3.3%(1~2월) → 4.1%(3월) → 2.5%(4월)

〈산업생산 및 재고 증가율〉




〈전력 생산 증가율〉

자료 : 중국통계국, CEIC



## 4월 소비자물가 18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1.8% 증가에 그치면서 2012년 10월 1.7% 상승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 기록
  - 채소(-7.9%)와 돼지고기(-7.2%)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식품 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2.3%를 기록하면서 물가 하락을 주도

- 4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년동월 대비 2.0% 감소하면서 26개월 하락세 지속

〈소비자물가 증가율〉

〈생산자물가 증가율〉

자료 : 중국통계국, CEIC

# 2. 시장 정보 및 이슈

## 중국 2016년 탄소배출량 상한제 도입 예정

● 베이징에서 열린 저탄소 관련 학회에 참석한 허젠쿤 중국 기후변화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이 2016년에 탄소배출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라 발언

– 그러나 허 위원장은 탄소배출량 상한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내년 상반기 윤곽이 들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중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현재 약 70억~95억 톤 수준이며 2030년에는 110억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용량을 100~200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

## 중국 신흥 인터넷기업 미국 증시 상장 잇달아

● 중국판 아마존닷컴인 중국 온라인쇼핑몰 징둥상청이 5월 22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

– 상장 첫날 징둥상청의 주가는 당초 예상치(16~18달러)보다 조금 높은 19달러로 출발해 20.90달러까지 오름

– 징둥상청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7억 8천만 달러(1조 8,254억 원)로 지금까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인터넷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

● 5월 16일에는 중국의 온라인 화장품판매업체인 쥐메이요우핀(聚美優品)이 상장

– 상장 첫날 쥐메이요우핀의 주가는 9.9%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번 상장을 통해 2억 4,510만 달러(약 2,509억 원)를 조달하는 데 성공

* 쥐메이요우핀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디올, 랑콤 등의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간 이용자가 천만 명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지난 5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

– 전문가들은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 시총 규모가 1,600억 달러(1,640조 8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베이징 신공항 건설에 약 860억 위안 투자 예정

● 중국증권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따싱취에 신공항이 건설될 예정
- 신공항은 신형 도시화 계획 중 지역 경제일체화 추진 지역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티엔진, 허베이성)의 교통 시스템 강화를 위해 건설될 예정
- 2018년 완공될 신공항 건설에는 약 860억 위안(14.7조 원)이 투자되며 약 5천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전망

  * 환경부의 '베이징 新공항프로젝트 환경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 건설에 799.87억 위안, 항공 관리시설 건설에 23억 위안, 공항 관제센터 건설에 18.8억 위안, 비행연료 공급시설 건설에 19.9억 위안 등이 투자될 예정
- 이 외에도 신공항 주변 교통인프라 개선, 공항-철도 연계 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공항선 경전철 건설, 공항선 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이 논의되고 있음

  * 현재 베이징 수도공항의 수용인원은 약 6천만 명 수준이며 2020년 경에는 1억 7천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 신공항 건설로 징진지 경제통합이 가속화 될 전망

## 2020년 중국 노령인구 2억 4,300만 명에 이를 전망

● 중국의 60세 이상 노령 인구가 2012년 1억 9,400만 명에서 2020년 2억 4,300만 명을 넘어설 전망
- 중국인민대학에 따르면 현재 노령화인구는 매년 8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약 4억 3,000만 명에 달해 인구 3명 중 1명이 60세이상의 노인일 것으로 예측

●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양로서비스업도 발전하여 2030년 경에는 산업규모가 약 10조 위안이 넘어설 전망

## 중국, IBM 서버 사용 금지 추진

●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정부 기관과 은행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 IBM 서버를 자국산으로 교체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보도
- 중국정부는 금융과 경제 정보가 모두 저장되는 컴퓨터 서버를 IBM 제품으로만 사용하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IBM 서버 사용 금지를 추진
- 그러나 이는 지난 20일 미국 정부가 컴퓨터 해킹 등으로 기업비밀을 훔치고 기술정보를 빼낸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5명을 기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도

– 2014년 1분기에만 IBM의 중국 판매액은 20% 하락하였으며 중국정부가 IBM서버 사용 금지를 추진할 경우, IBM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

## Windows 8 운영체제가 설치된 IT 제품, 정부조달 입찰 금지

● 중국 중앙정부 조달센터(中央國家機關政府采購中心)는 지난 16일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윈도우 8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힘

＊ 윈도우 8 사용 금지 대상 품목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구입한 모든 PC, 노트북, 태블릿 PC 등이 포함

– 신화통신은 외국산 운영체제를 사용할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윈도우 XP 기술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히자 중국 정부는 기술 지원 보장을 하지 않는 운영체제를 위험을 무릅쓰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렸다는 것

–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중국 정부에게 윈도우 7을 계속 제공하고, 윈도우 8도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2013년 중국 인터넷 쇼핑 거래액 1조 8,477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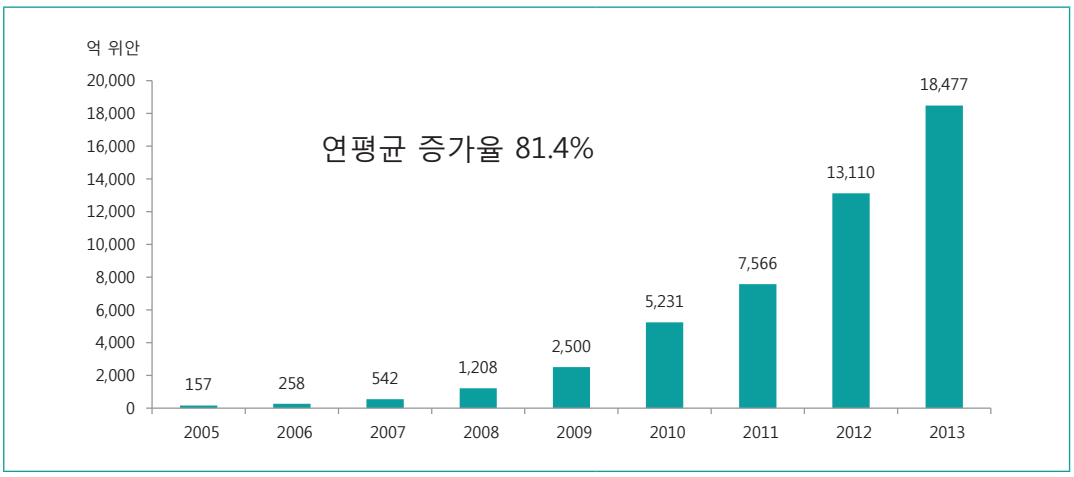
● 인민일보에 의하면 2013년 중국 인터넷 소매 이용자는 3억 200만 명에 달하고 인터넷 소매 거래 규모는 1조 8,477억 위안에 이름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인터넷 쇼핑 거래액은 연평균 81.4% 증가하였으며 2020년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는 4조 2,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

● 중국 CCTV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인들의 81%가 온라인 쇼핑을 즐기며 의류, 디지털 기기,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18~25세 사이의 젊은층이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인터넷 쇼핑 거래액 추이〉




자료 : CINIC



## 중국,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부상

-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의하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업용 로봇 구매국으로 부상
  - 파이낸셜타임스는 국제로봇협회(IFR) 통계를 인용, 중국이 지난해 3만 6,560대의 산업용 로봇을 구매했다고 보도
  - 이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에서 팔린 산업용 로봇 5대 가운데 1대를 중국이 구매한 것
  - 반면 지난해 일본과 미국은 각각 26,015대, 23,679대의 산업용 로봇을 구매해 세계 제2위와 3위를 차지

## 알리바바, 싱가포르 우정사업국에 투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는 150년 역사를 가진 싱가포르 우정사업국 싱포스트(SingPost) 지분 10.35%를 2억 4,9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함
  - 알리바바는 싱포스트의 국제우편업무와 물류유통, 인프라건설, 배송망 등을 통해 알리바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통합형(end-to-end)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
  - 이를 통해 알리바바는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으로 전망

# 3. 한·중 수출입 동향

## 4월 對중국 수출입 모두 소폭 둔화

- 수출은 124.3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하면서 소폭 둔화
- 수입은 79.2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6% 증가
- 4월 對중국 무역수지는 45.1억 달러로 3월 46.0억 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

〈최근 對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

| | | 2013 | 2013.11 | 2013.12 | 2014.01 | 2014.0.2 | 2014.03 | 2014.4 | 2014.1~4 |
|---|---|---|---|---|---|---|---|---|---|
| 수출 | 금액 | 1,458.4 | 128.9 | 129.9 | 115.0 | 107.8 | 122.0 | 124.3 | 468.8 |
| | 증가율 | 8.6 | 3.7 | 8.3 | 0.6 | 3.7 | 4.4 | 2.4 | 2.7 |
| 수입 | 금액 | 830.4 | 72.4 | 70.7 | 75.0 | 57.9 | 76.0 | 79.2 | 288.0 |
| | 증가율 | 2.8 | 4.8 | 10.2 | 2.5 | 4.8 | 9.7 | 5.6 | 5.6 |
| 무역수지 | | 628.0 | 56.5 | 59.2 | 40.0 | 49.9 | 46.0 | 45.1 | 180.7 |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반도체,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평판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스마트기기 사용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반도체 단가도 상승하면서 수출증가세 지속
  – 특히 중국내 반도체공장 신설로 인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중국 자동차 공장 생산확대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증가세 지속
- 그러나 중국기업의 신규설비 가동과 정제마진 악화로 인한 가동률 하락으로 석유제품의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평판디스플레이 또한 수급 불안정에 따른 LCD 패널가격 하락 및 물량감소로 수출 감소세 지속

〈4월 對중국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 순위 | 수출 | | | 수입 | | |
|---|---|---|---|---|---|---|
|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 | 총계 | 12,426 | 2.4 | 총계 | 7,917 | 5.6 |
| 1 | 반도체 | 1,900 | 28.3 | 반도체 | 595 | 0.3 |
| 2 | 평판디스플레이 | 1,454 | −12.5 | 철강판 | 547 | 62.9 |
| 3 | 전자응용기기 | 679 | −4.7 | 컴퓨터 | 460 | 4.2 |
| 4 | 합성수지 | 667 | 6.2 | 무선통신기기 | 436 | 214.8 |
| 5 | 석유제품 | 619 | −19.3 | 평판디스플레이 | 333 | 4.2 |
| 6 | 자동차부품 | 564 | 25.6 | 의류 | 289 | 3.7 |
| 7 | 무선통신기기 | 542 | 13.1 | 정밀화학원료 | 282 | 16.6 |
| 8 | 석유화학중간원료 | 463 | −5.9 | 기구부품 | 203 | −1.8 |
| 9 | 기초유분 | 391 | −2.4 | 전선 | 198 | 13.2 |
| 10 | 철강판 | 347 | 38.4 | 정전 기기 | 147 | −52.7 |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BRICs 주요 경제 통계

## 【브라질】

| 년월 | GDP 성장률 | 산업 생산 증가율 |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 소매 판매 증가율 | 수출 증가율 | 수입 증가율 | 무역 수지 | 소비자 물가 증가율 | 생산자 물가 증가율 | 헤알/ 달러 환율 | M2 증가율 |
|---|---|---|---|---|---|---|---|---|---|---|---|
| 단위 | % | % | % | % | % | % | 억달러 | % | % | 헤알 | % |
| 2001년 | 1.3 | 1.6 | -15.7 | -1.6 | 5.7 | -0.4 | 27 | 6.8 | 12.6 | 2.353 | 13.3 |
| 2002년 | 2.7 | 2.7 | -36.4 | -0.7 | 3.7 | -15.0 | 131 | 8.5 | 16.7 | 2.923 | 23.6 |
| 2003년 | 1.1 | 0.1 | 38.2 | -3.7 | 21.1 | 2.2 | 248 | 14.7 | 27.6 | 3.079 | 3.9 |
| 2004년 | 5.7 | 8.3 | 34.4 | 9.2 | 32.0 | 30.1 | 336 | 6.6 | 10.5 | 2.927 | 19.5 |
| 2005년 | 3.2 | 3.1 | 22.7 | 4.8 | 22.6 | 17.1 | 447 | 6.9 | 5.6 | 2.434 | 18.0 |
| 2006년 | 4.0 | 2.8 | 18.2 | 6.2 | 16.5 | 24.1 | 465 | 4.2 | 0.8 | 2.174 | 13.6 |
| 2007년 | 6.1 | 6.0 | 13.6 | 9.7 | 16.6 | 32.0 | 400 | 3.6 | 5.6 | 1.947 | 18.1 |
| 2008년 | 5.2 | 3.1 | 9.1 | 9.1 | 23.2 | 43.5 | 248 | 5.7 | 13.7 | 1.835 | 37.3 |
| 2009년 | -0.3 | -7.4 | -10.2 | 5.9 | -22.7 | -26.2 | 253 | 4.9 | -0.2 | 1.999 | 8.8 |
| 2010년 | 7.5 | 10.5 | 21.2 | 10.9 | 32.0 | 42.3 | 202 | 5.0 | 5.7 | 1.760 | 16.7 |
| 2011년 | 2.7 | 0.4 | 16.6 | 6.7 | 26.8 | 24.5 | 298 | 6.6 | 9.4 | 1.674 | 18.7 |
| 2012년 | 1.0 | -2.7 | -4.0 | 8.4 | -5.3 | -1.4 | 194 | 5.8 | 7.2 | 1.953 | 9.0 |
| 2013년 | 2.3 | 1.2 | - | 4.3 | -1.0 | 6.5 | 25 | 5.9 | 5.8 | 2.157 | 8.8 |
| 1월 | - | 5.7 | - | 5.9 | -1.1 | 14.7 | -40 | 6.2 | 7.6 | 2.028 | 7.9 |
| 2월 | - | -3.2 | - | -0.3 | -13.7 | 3.1 | -13 | 6.3 | 7.7 | 1.973 | 7.4 |
| 3월 | 1.9 | -3.3 | - | 4.5 | -7.6 | 1.4 | 2 | 6.6 | 6.6 | 1.984 | 8.4 |
| 4월 | - | 8.4 | - | 1.6 | 5.4 | 15.7 | -10 | 6.5 | 5.5 | 2.001 | 8.4 |
| 5월 | - | 1.4 | - | 4.5 | -6.0 | 4.0 | 8 | 6.7 | 4.1 | 2.037 | 8.4 |
| 6월 | 3.5 | 3.1 | - | 1.7 | 9.7 | 1.5 | 24 | 6.7 | 4.3 | 2.173 | 3.0 |
| 7월 | - | 2.0 | - | 6.0 | -0.9 | 25.2 | -19 | 6.3 | 5.0 | 2.252 | 8.9 |
| 8월 |  | -1.2 | - | 6.2 | -4.3 | 5.4 | 12 | 6.1 | 6.0 | 2.341 | 9.0 |
| 9월 | 2.4 | 2.0 | - | 4.3 | 5.0 | 8.1 | 22 | 5.7 | 5.9 | 2.264 | 9.0 |
| 10월 | - | 1.0 | - | 5.3 | 4.9 | 14.6 | -2 | 5.8 | 5.2 | 2.188 | 9.2 |
| 11월 | - | 0.4 | - | 7.0 | 1.9 | -7.5 | 17 | 5.8 | 5.5 | 2.296 | 10.2 |
| 12월 | 2.2 | -2.3 | - | 4.0 | 0.4 | 0.4 | 41 | 5.9 | 5.8 | 2.347 | 10.3 |
|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1월 | - | -2.4 | - | 6.2 | 0.4 | 0.4 | -41 | 5.6 | 7.4 | 2.386 | 12.0 |
| 2월 | - | - | - | 8.5 | 2.5 | 7.3 | -21 | 5.7 | 8.2 | 2.379 | 12.9 |
| 3월 | 1.9 | 5.0 | - | -1.1 | -8.8 | -8.6 | 1 | 6.2 | 8.0 | 2.325 | 11.5 |
| 4월 | - | - | - | - | -4.4 | -11.1 | 5 | 6.3 | - | 2.233 | 12.0 |

자료 : EIU, Global Insight, CEIC, 브라질 중앙은행(BCB),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 【러시아】

| 년월 | GDP 성장률 | 산업 생산 증가율 | 고정 자산투자 증가율 | 소매 판매 증가율 | 수출 증가율 | 수입 증가율 | 무역 수지 | 소비자 물가 증가율 | 생산자 물가 증가율 | 루블/ 달러 환율 | M2 증가율 |
|---|---|---|---|---|---|---|---|---|---|---|---|
| 단위 | % | % | % | % | % | % | 억달러 | % | % | 루블 | % |
| 2001년 | 5.1 | 2.9 | 10.0 | 8.5 | -3.0 | 19.8 | 481 | 21.5 | 19.1 | 30.14 | 39.9 |
| 2002년 | 4.7 | 3.0 | 2.8 | 9.3 | 5.3 | 13.4 | 463 | 15.8 | 11.3 | 31.78 | 32.4 |
| 2003년 | 7.3 | 8.9 | 12.5 | 5.8 | 26.7 | 24.8 | 599 | 13.7 | 16.4 | 29.45 | 50.4 |
| 2004년 | 7.2 | 8.0 | 13.7 | 11.8 | 34.8 | 28.0 | 858 | 10.9 | 23.4 | 27.75 | 35.8 |
| 2005년 | 6.4 | 5.1 | 10.9 | 11.8 | 33.1 | 28.8 | 1,184 | 12.5 | 20.6 | 28.78 | 38.5 |
| 2006년 | 8.2 | 6.3 | 16.7 | 12.5 | 24.5 | 31.0 | 1,393 | 9.8 | 12.4 | 26.33 | 48.7 |
| 2007년 | 8.5 | 6.8 | 22.7 | 14.5 | 16.8 | 36.0 | 1,309 | 9.1 | 14.1 | 24.55 | 43.5 |
| 2008년 | 5.2 | 0.6 | 9.9 | 12.3 | 33.1 | 30.6 | 1,797 | 14.1 | 21.4 | 29.38 | 0.8 |
| 2009년 | -7.8 | -9.3 | -15.7 | -6.1 | -35.7 | -34.3 | 1,116 | 11.8 | -7.2 | 30.24 | 17.7 |
| 2010년 | 4.3 | 8.2 | 6.0 | 5.6 | 32.1 | 29.6 | 1,520 | 6.8 | 12.2 | 30.48 | 31.1 |
| 2011년 | 4.3 | 4.7 | 8.3 | 7.0 | 30.3 | 30.2 | 1,982 | 8.4 | 17.7 | 32.20 | 22.3 |
| 2012년 | 3.4 | 2.6 | 6.6 | 5.9 | 2.7 | 5.4 | 1,934 | 5.1 | - | 30.37 | 11.9 |
| 2013년 | 1.3 | 0.3 | -0.3 | 3.9 | -0.9 | 2.6 | 1,791 | - | - | 32.73 | 14.6 |
| 1월 | - | -0.8 | 1.1 | 4.4 | -1.5 | 13.3 | 172 | 7.1 | 4.7 | 30.03 | 13.3 |
| 2월 | - | -2.1 | 0.3 | 3.1 | -6.6 | 7.6 | 153 | 7.3 | 4.7 | 30.62 | 14.2 |
| 3월 | 0.8 | 2.6 | -0.8 | 4.5 | -5.6 | 0.5 | 158 | 7.0 | 3.4 | 31.08 | 14.6 |
| 4월 | - | 2.3 | -0.7 | 4.2 | -2.0 | 11.3 | 143 | 7.2 | 1.6 | 31.26 | 15.2 |
| 5월 | - | -1.4 | 0.4 | 3.0 | -9.8 | -6.2 | 146 | 7.4 | 2.7 | 31.59 | 15.3 |
| 6월 | 1.0 | 0.1 | -3.7 | 3.6 | 2.6 | 5.0 | 136 | 6.9 | 3.7 | 32.71 | 15.5 |
| 7월 | - | -0.7 | 2.5 | 4.4 | 6.3 | 2.7 | 133 | 6.5 | 6.6 | 32.89 | 17.0 |
| 8월 | - | 0.1 | -3.9 | 4.0 | 3.4 | -4.4 | 140 | 6.5 | 4.6 | 33.25 | 17.1 |
| 9월 | 1.3 | 0.3 | -1.6 | 3.0 | 4.0 | 5.7 | 159 | 6.1 | 1.9 | 32.35 | 16.1 |
| 10월 | - | -0.1 | -1.9 | 3.5 | -5.6 | -4.3 | 132 | 6.3 | 2.0 | 32.06 | 15.4 |
| 11월 | - | -1.0 | 0.2 | 4.5 | -5.0 | -4.1 | 137 | 6.5 | 1.6 | 33.19 | 16.3 |
| 12월 | 2.0 | 0.8 | 0.3 | 3.8 | 1.9 | -1.3 | - | 6.5 | 3.7 | 32.73 | 14.6 |
|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1월 | - | -0.2 | -7.0 | 2.6 | 1.6 | -4.3 | 207 | 6.1 | 4.5 | 33.46 | 12.7 |
| 2월 | - | 2.1 | -3.5 | 3.9 | -15.2 | -9.6 | 138 | 6.2 | 3.2 | 35.22 | 12.1 |
| 3월 | 0.9 | 1.4 | -4.3 | 4.0 | 4.9 | -3.4 | 214 | 6.9 | 5.0 | 36.21 | 8.5 |
| 4월 | - | 2.4 | -2.7 | 2.6 | 6.0 | -9.3 | 217 | 7.3 | 7.2 | 35.66 | 8.3 |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Global Insight, CEIC

## 【인도】

| 년월 | GDP 성장률 | 산업 생산 증가율 | 고정자본 형성 증가율 | repo 금리 | 수출 증가율 | 수입 증가율 | 무역 수지 | 도매 물가 상승률 | 루피/ 달러 환율 | M3 증가율 |
|---|---|---|---|---|---|---|---|---|---|---|
| 단위 | % | % | % | % | % | % | 억달러 | % | 루피 | % |
| 2001년 | 5.2 | 2.7 | 15.3 | 8.50 | −1.6 | 1.7 | −76 | 5.2 | 48.180 | 14.1 |
| 2002년 | 3.8 | 4.9 | −0.4 | 7.50 | 20.3 | 19.4 | −87 | 2.5 | 48.030 | 15.9 |
| 2003년 | 8.4 | 6.6 | 10.6 | 7.00 | 21.1 | 27.3 | −143 | 5.3 | 45.605 | 13.0 |
| 2004년 | 8.4 | 10.8 | 24.0 | 6.00 | 30.8 | 42.7 | −280 | 6.2 | 43.585 | 12.8 |
| 2005년 | 9.3 | 8.8 | 16.2 | 6.25 | 23.4 | 33.8 | −461 | 4.6 | 45.065 | 17.8 |
| 2006년 | 9.3 | 12.0 | 13.8 | 7.25 | 22.6 | 24.5 | −593 | 5.9 | 44.245 | 19.3 |
| 2007년 | 9.8 | 15.6 | 16.2 | 7.75 | 28.9 | 35.4 | −885 | 5.0 | 39.415 | 22.8 |
| 2008년 | 4.9 | 7.7 | 3.5 | 6.50 | 13.7 | 20.8 | −1,184 | 8.8 | 48.455 | 19.9 |
| 2009년 | 7.1 | 0.2 | 7.7 | 4.75 | −3.5 | −5.0 | −1,096 | 2.4 | 46.680 | 17.7 |
| 2010년 | 9.3 | 9.7 | 11.0 | 6.25 | 40.5 | 28.2 | −1,186 | 9.6 | 44.810 | 19.1 |
| 2011년 | 6.2 | 4.8 | 12.3 | 8.50 | 21.8 | 32.3 | −1,834 | 9.5 | 53.266 | 15.9 |
| 2012년 | 5.0 | 0.8 | 0.8 | 8.00 | −1.8 | 0.3 | −1,903 | 7.5 | 54.850 | 12.9 |
| 2013년 | 4.9 | 0.6 | −0.1 | 7.75 | 4.0 | −8.1 | −1,386 | 6.3 | 61.897 | 14.9 |
| 1월 | – | 2.4 | – | 7.75 | 0.8 | 6.2 | −206 | 6.6 | 53.289 | 13.0 |
| 2월 | – | 0.5 | – | 7.75 | 4.2 | 2.7 | −149 | 6.8 | 54.365 | 12.7 |
| 3월 | 4.4 | 2.5 | 3.3 | 7.50 | 7.0 | −2.9 | −103 | 6.0 | 54.280 | 13.8 |
| 4월 | – | 2.3 | – | 7.50 | 1.7 | 11.0 | −178 | 5.0 | 54.219 | 12.9 |
| 5월 | – | −1.6 | – | 7.25 | −1.1 | 7.0 | −201 | 4.7 | 56.496 | 13.6 |
| 6월 | 4.4 | −2.2 | −2.8 | 7.25 | −4.6 | −0.4 | −123 | 4.9 | 59.523 | 12.7 |
| 7월 | – | 2.6 | – | 7.25 | 11.6 | −6.2 | −123 | 5.8 | 61.115 | 12.4 |
| 8월 | – | 0.6 | – | 7.25 | 13.0 | −0.7 | −109 | 6.1 | 66.574 | 12.0 |
| 9월 | 4.8 | 2.0 | 3.1 | 7.50 | 11.2 | −18.1 | −68 | 6.5 | 62.777 | 12.9 |
| 10월 | – | −1.6 | – | 7.75 | 13.5 | −14.5 | −106 | 7.0 | 61.410 | 13.6 |
| 11월 | – | −2.1 | – | 7.75 | 5.9 | −16.4 | −92 | 7.5 | 62.395 | 15.1 |
| 12월 | 4.7 | −0.6 | 0.2 | 7.75 | 3.5 | −15.3 | −101 | 6.2 | 61.897 | 14.9 |
|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1월 | – | 0.1 | – | 8.00 | 3.8 | −18.1 | −99 | 5.1 | 62.477 | 14.4 |
| 2월 | – | −1.9 | – | 8.00 | −3.7 | −17.1 | −81 | 4.7 | 62.072 | 14.5 |
| 3월 | – | −0.5 | −0.9 | 8.00 | −3.2 | −2.1 | −105 | 5.7 | 60.100 | 13.5 |
| 4월 | – | – | – | 8.00 | 5.3 | −15.0 | −101 | 4.8 | 60.338 | 13.9 |

주 : 연도별 데이타는 그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회계연도 기준 자료임. 예를 들어 2012년 자료는 2012년 4월–2013년 3월까지의 통계

자료 : Global Insight, 인도중앙은행, CEIC

## 【중국】

| 년월 | GDP 성장률 | 산업 생산 증가율 |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 소매 판매 증가율 | 수출 증가율 | 수입 증가율 | 무역 수지 | 소비자 물가 증가율 | 생산자 물가 증가율 | 위안/ 달러 환율 | M2 증가율 |
|---|---|---|---|---|---|---|---|---|---|---|---|
| 단위 | % | % | % | % | % | % | 억달러 | % | % | 위안 | % |
| 2001년 | 8.3 | 9.5 | 13.7 | 10.1 | 6.8 | 8.1 | 225 | −0.6 | −1.3 | 8.277 | 17.6 |
| 2002년 | 9.1 | 12.9 | 17.4 | 8.8 | 22.4 | 21.3 | 304 | 3.2 | −2.2 | 8.277 | 16.9 |
| 2003년 | 10.0 | 16.7 | 28.4 | 9.0 | 34.6 | 39.8 | 255 | 1.2 | 2.3 | 8.277 | 19.6 |
| 2004년 | 10.1 | 16.2 | 27.6 | 13.3 | 35.4 | 35.8 | 321 | 3.9 | 6.1 | 8.277 | 14.5 |
| 2005년 | 11.3 | 16.0 | 27.2 | 12.9 | 28.5 | 17.6 | 1,020 | 6.3 | 4.9 | 8.070 | 18.0 |
| 2006년 | 12.7 | 16.9 | 24.5 | 13.7 | 27.2 | 19.7 | 1,775 | 6.1 | 3.0 | 7.809 | 15.7 |
| 2007년 | 14.2 | 17.9 | 25.8 | 16.7 | 25.8 | 20.3 | 2,643 | 7.7 | 3.1 | 7.305 | 16.7 |
| 2008년 | 9.6 | 12.5 | 26.1 | 21.6 | 17.6 | 18.7 | 2,981 | 25.0 | 6.9 | 6.835 | 18.9 |
| 2009년 | 9.2 | 11.6 | 30.5 | 15.5 | −16.1 | −11.1 | 1,957 | −0.7 | −5.5 | 6.828 | 27.7 |
| 2010년 | 10.4 | 15.3 | 24.5 | 18.4 | 31.4 | 39.1 | 1,815 | 4.0 | 5.5 | 6.623 | 19.7 |
| 2011년 | 9.3 | 13.7 | 23.8 | 17.1 | 20.3 | 24.9 | 1,549 | 5.5 | 6.0 | 6.301 | 13.6 |
| 2012년 | 7.8 | 10.0 | 20.6 | 14.3 | 7.9 | 4.3 | 2,311 | 2.6 | −1.7 | 6.289 | 13.8 |
| 2013년 | 7.7 | 9.7 | 19.7 | 13.1 | 7.9 | 7.3 | 2,598 | 2.6 | −1.9 | 6.097 | 13.6 |
| 1월 | – | – | – | – | 25.0 | 28.8 | 291 | 2.0 | −1.6 | 6.280 | 15.9 |
| 2월 | – | 9.9 | 21.2 | 12.3 | 21.8 | −15.2 | 153 | 3.2 | −1.6 | 6.278 | 15.2 |
| 3월 | 7.7 | 8.9 | 20.9 | 12.6 | 10.0 | 14.1 | −9 | 2.1 | −1.9 | 6.269 | 15.7 |
| 4월 | – | 9.3 | 20.6 | 12.8 | 14.7 | 16.8 | 182 | 2.4 | −2.6 | 6.221 | 16.1 |
| 5월 | – | 9.2 | 20.4 | 12.9 | 1.0 | −0.3 | 204 | 2.1 | −2.9 | 6.180 | 15.8 |
| 6월 | 7.5 | 8.9 | 20.1 | 13.3 | −3.1 | −0.7 | 271.2 | 2.7 | −2.7 | 6.179 | 14.0 |
| 7월 | – | 9.7 | 20.1 | 13.2 | 5.1 | 10.9 | 178.2 | 2.7 | −2.3 | 6.179 | 14.5 |
| 8월 | – | 10.4 | 20.3 | 13.4 | 7.2 | 7.0 | 285.2 | 2.6 | −1.6 | 6.171 | 14.7 |
| 9월 | 7.8 | 10.2 | 20.2 | 13.3 | −0.3 | 7.4 | 152.1 | 3.1 | −1.3 | 6.148 | 14.2 |
| 10월 | – | 10.3 | 20.1 | 13.3 | 5.6 | 7.6 | 311.1 | 3.2 | −1.5 | 6.143 | 14.3 |
| 11월 | – | 10.0 | 19.9 | 13.7 | 12.7 | 5.3 | 338.0 | 3.0 | −1.4 | 6.133 | 14.2 |
| 12월 | 7.7 | 9.7 | 19.7 | 13.6 | 4.3 | 8.3 | 256.0 | 2.5 | −1.4 | 6.097 | 13.6 |
|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1월 | – | – | – | – | 10.5 | 10.8 | 318.7 | 2.5 | −1.6 | 6.105 | 13.2 |
| 2월 | – | 8.6 | 17.9 | 11.8 | −18.1 | 10.4 | −229.9 | 2.0 | −2.0 | 6.121 | 13.3 |
| 3월 | 7.4 | 8.8 | 17.6 | 12.2 | −6.6 | −11.3 | 77.0 | 2.4 | −2.3 | 6.152 | 12.1 |
| 4월 | – | 8.7 | 17.3 | 11.9 | 0.9 | 0.8 | 184.5 | 1.8 | −2.0 | 6.158 | 13.2 |

자료 : 중국통계국, CEIC, Global Insight

# 무역협회 주요 추진 사업

## 상해자유무역시험구 활용방안 설명회

- 일시 : 2014년 6월 19일(목) 13:30 ~ 18:00
- 장소 :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참가대상 : 상해자유무역구 진출(투자) 희망업체 및 임직원 100여명
- 주요내용
  - 상해자유무역구 현황 및 우대정책, 지원제도 등 설명
  - 상해자유무역구 상사중재규칙 주요 내용 설명
  - 상해자유무역구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 모색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 내 관련 페이지에서 하단의 온라인 참가신청 버튼을 클릭
- 관련문의 : 한국무역협회 중국실
  (Tel. 02-6000-7619, E-mail. chinateam@kita.net)

## 중국 통상담당 공무원 초청 오찬 교류회

- 일시 : 2014년 6월 17일(화) 11;30 ~ 13:30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 룸 (남측) 308호
- 행사규모 : 중국 통상담당 공무원(약 20명), 한국 기업 임직원(약 50명)
- 참가대상 : 한국 기업 임직원 약 50명(1사당 1명, 부장급 이상)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 내 관련 페이지에서 하단의 온라인 참가신청 버튼을 클릭
- 관련문의 : 한국무역협회 중국실
  (Tel. 02-6000-5312/5384, E-mail. dragon1316@kita.net)

## Premium 인도 · 아세안 1:1 무역상담회

- 일시 : 2014년 6월 17일(화) ~ 2014년 6월 18일(수)
- 장소 : 삼성동 COEX E 1~4홀
- 행사규모 : 인도 및 아세안 바이어 36개사
- 상담품목 : 전자제품, 컴퓨터 및 기계부품, 식 · 음료 유통, 주방용품, 스포츠 및 생활 용품, 건강/이 · 미용품, 의류, 악세사리 등
- 모집업체 : 국내기업 약 150여 社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 내 관련 페이지에서 참가신청링크를 클릭
- 관련문의 : 한국무역협회 아주실 (Tel. 02-6000-5314/5824)

## Premium 인도 · 아세안 시장진출 세미나

- 일시 : 2014년 6월 17일(화) 14:00 ~ 17:30
- 장소 : 삼성동 COEX E 홀
- 참가대상 : 인도 및 아세안 시장에 관심있는 무역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 내 관련 페이지에서 참가신청링크를 클릭
- 관련문의 : 한국무역협회 아주실 (Tel. 02-6000-5192)

##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세미나

- 일시 : 2014년 6월 18일(수) 14:00 ~ 18:00
- 장소 :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참가대상 : FTA 활용업체 및 관심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명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 내 관련 페이지에서 하단의 온라인 참가신청 버튼을 클릭
- 관련문의 :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활용전략실 (Tel. 02-6000-7630/4687)

## 한-몽골 상공인 교류회

- 일시 : 2014년 6월 13일(금) 10:00 ~ 11:50
- 장소 :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 참가대상 : 對몽골 투자 및 교역 희망업체 및 임직원 약 20명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 내 관련 페이지에서 하단의 온라인 참가신청 버튼을 클릭
- 관련문의 : 한국무역협회 중국실
  (Tel. 02-6000-7619, E-mail. chinateam@kita.net, Fax. 02-6000-3079)

## 제6회 대학생 무역캠프

- 일시 및 장소
  - 부산 : 2014년 6월 27일(금) ~ 2014년 11월 1일(토), 부산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 서울 : 2014년 7월 4일(금) ~ 2014년 7월 6일(일), 경기도 현대인재개발원
- 참가대상 : 전국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및 비전공자 포함), 350명
- 행사내용
  - 외국인 바이어와 함께하는 무역 협상 시뮬레이션
  - 무역실무 개요 및 수출입 시뮬레이션 실습
  - 팀별로 제공된 가상의 무역업체에 대한 해외 마케팅 전략 도출 및 실습
  - 시장진출전략, 무역거래 프로세스 실습 및 전략 PT
  - 사례로 보는 수출성공전략 및 협상스킬
  - 팀 프로젝트 발표 및 평가
- 참가비 : 30만원
- 신청방법 : 무역아카데미(www.tradecampus.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선착순)
- 관련문의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연수실
  (Tel. 02-6000-5372, E-mail. tradecamp@kita.net)

## 제 14회 대학(원)생 무역논문대회

- 참가대상
  -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내국인(외국국적의 한국인 포함)
  - 팀 또는 개인단위로 응모가능 (1팀당 최대 4인까지 가능)
    ※ 단, 외국에 있는 학생의 경우 본선 발표대회 및 시상식 개최시 교통비 미지급
    ※ 2011년, 2012년, 2013년 무역협회 주최 논문대회 수상자는 참가 불가
- 참가신청 마감 : 2014년 7월 25일(금)
- 논문제출 기간 : 2014년 9월 22일(월) ~ 23일(화)
- 논문주제 : 무역 2조 달러를 향한 글로벌 무역역량 강화방안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 내 관련 페이지에서 하단의 온라인 참가신청 버튼을 클릭
- 관련문의 :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논문대회 담당자
  (Tel. 02-6000-5498/5344, E-mail. trifta@kita.net)

## 제 20기 글로벌 물류 최고경영자 과정(Global Logistics Management Program) 모집

- 일시 : 2014년 9월 초 ~ 12월 중순(3.5개월)
  매주 월요일 저녁 19:00~20:30 / 매주 수요일 아침 07:20~08:50
  ※ 조식, 석식제공
- 장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 참가대상
  - 육상, 해운, 항공 등 물류업계 CEO 및 임원
  - 제조, 무역, 유통관련 기업 SCM구매담당 임원
  -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고위직 공무원, 언론인, 문화계 인사 등
- 신청마감 : 2014년 8월 14일 (목)
- 신청방법 : 온라인(www.glmp.kr) 및 우편접수
- 관련문의 : 한국무역협회 GLMP사무국 (Tel. 02-6000-8291, 5364)

# 2013-2014년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발간목록

| 월 | 보고서 제목 | 소속실 | 담당자 |
|---|---|---|---|
| 8월 | 태평양동맹의 유망시장 페루, FTA 발효 2년 성과 확대 가능한가? | 통상연구실 | 문병기, 이혜연, 박세진 |
| | 중소기업, SNS 마케팅으로 新시장 일군다 | 기업경쟁력실 | 박기임, 피하정 |
| | 2012년 수출, 우리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나 | 동향분석실 | 홍지상, 오세환 |
| | 미국 제조업, 드디어 동면에서 깨어나는가? | 기업경쟁력실 | 박기임, 김윤수 |
| 9월 | 수출 상품 고급화 어디까지 왔나? | 동향분석실 | 오세환, 심혜정 |
| | 산업현장의 숙련단절이 다가온다 | 동향분석실 | 오호영 |
| | 무한한 잠재력과 기회의 시장 베트남 | 전략시장연구실 | 송송이 |
| |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애로 및 개선사항 | 기업경쟁력실 | 장현숙, 박진우 |
| | 세계교역 호 · 부진기 어떤 품목이 주목받는가? | 동향분석실 | 장상식, 심혜정 |
| | 중국 서비스시장 어느 업종이 유망한가? | 미래무역연구실 | 이동주 |
| | 한 · 중 · 일 FTA,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금석 | 통상연구실 | 정환우 |
| | 2013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 | 동향분석실 | 심혜정, 홍지상 |
| 10월 | 외국인들이 본 한국, 한국인 그리고 한국제품 | 미래무역연구실 | 조상현 |
| | EU 경제 회복 조짐, 對EU 수출 진단 | 통상연구실 | 이혜연, 명진호 |
| |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동향분석실 | 오세환 |
| | 인도기업과의 합작진출 10대 장점 | 전략시장연구실 | 송송이 |
| | 금년 하반기 및 내년 수출, IT가 견인할 것인가? | 동향분석실 | 장상식, 김예민 |
| | 부품 · 소재 무역패턴 변화의 明과 暗 | 동향분석실 | 제현정 |
| 11월 | GCF 출범, 해외환경시장 공략의 열쇠로 활용하라 | 기업경쟁력실 | 장현숙, 이원홍 |
| | 한국무역, 50년의 여정과 위상 | 동향분석실 | 홍지상, 제현정, 장상식 |
| | 해외 바이어와 우리 수출기업의 한국제품 평가 비교 | 동향분석실 | 심혜정 |
| | 2013년 수출입 평가 및 2014년 전망 | 동향분석실 | 동향분석실 |
| | 외국인 직접투자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가속화할 것인가? | 통상연구실 | 문병기, 문슬기 |
| | 동아시아 무역구조, 중간재 위주 · 낮은 내향성 극복 필요 | 통상연구실 | 조성대, 문병기 |
| 12월 | 서비스 혁신, 5大 키워드로 준비하자– | 미래무역연구실 | 박필재 |
| | 독일發 일 · 학습 직업 교육, 한국에서도 성공하려면 | 기업경쟁력실 | 박기임 |

# 2013-2014년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발간목록

| 월 | 보고서 제목 | 소속실 | 담당자 |
|---|---|---|---|
| 12월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수출 및 FDI 영향 분석 | 동향분석실 | 오호영, 오세환, 이은미 |
| | 2014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 | 동향분석실 | 심혜정 |
| | 중국 경제, 3C를 주목하라 | 전략시장연구실 | 이봉걸 |
| 2014년 1월 | 2014년 주목해야 할 국제환경규제와 영향 | 기업경쟁력실 | 장현숙, 이원홍 |
| | 창조경제, 중소기업 R&D 산학협력에서 해답을 찾다 | 기업경쟁력실 | 박진우 |
|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 경쟁력 | 동향분석실 | 오세환 |
| | 빅뱅하는 중국 의료시장, 우리에게도 블루오션인가? | 미래무역연구실 | 김정덕, 박필재 |
| 2월 | 경고등 켜진 對한국 수입규제 | 통상연구실 | 제현정 |
| | 2013년 남북교역 · 북중무역 동향 비교 | 남북교역팀 | 성백웅, 양지연 |
| 3월 | 美 테이퍼링 이후 신흥국의 경제동향과 우리 수출 영향 | 동향분석실 | 심혜정, 오세환 |
| | 가깝고도 먼 중국 서비스 시장 | 미래무역연구실 | 김정덕, 박필재 |
| | 한미 FTA, 이제 시작이다 | 통상연구실 | 제현정, 명진호, 김미경, 정혜선 |
| | 최근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4년 전망 | 통상연구실 | 이혜연, 명진호, 제현정, 문슬기 |
| | 세계 최대 경제권 EU를 다시 주목하라 | 동향분석실 | 장상식, 류솔아 |
| | 2014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 | 동향분석실 | 심혜정 |
| | 청년 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 기업경쟁력실 | 장현숙 |
| | 중국 생활 서비스 시장, 차량 없는 국도와 유사 | 미래무역연구실 | 박필재 |
| | 한국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 통상연구실 | 명진호, 정혜선, 제현정, 문슬기 |
| | 한국 FTA 10년의 경제적 과실 | 통상연구실 | 제현정, 명진호, 이혜연 |
| |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국의 FTA 10년 | 통상연구실 | 명진호, 정혜선, 제현정, 이혜연 |
| 4월 | 청년 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 기업경쟁력실 | 장현숙 |
| | 對터키 수출, 한 · 터키 FTA로 순풍에 돛 달다 | 통상연구실 | 이혜연, 명진호 |
| | 중국 그림자금융 바로 알기 | 전략시장연구실 | 이봉걸 |
| 5월 | 한 · 아세안 FTA, 끝나지 않은 여정 | 통상연구실 | 제현정, 정혜선 |

* 상기 보고서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http://iit.kita.net/)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BRICs INSIDE 2014년 6월호

2014년 6월 10일 인쇄
2014년 6월 12일 발행

발 행 처 | 한국무역협회
발 행 인 | 한덕수
편 집 인 | 오상봉
주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48층 전략시장연구실
전 화 | 02)6000-5499
팩 스 | 02)6000-6198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
디자인/인쇄 | (주) 보성인쇄기획
ISSN | 2287-7061

ⓒ 한국무역협회 2014 Printed in Korea
본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전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Monthly Report*

# BRICs INSIDE

판매가 : 8,000원